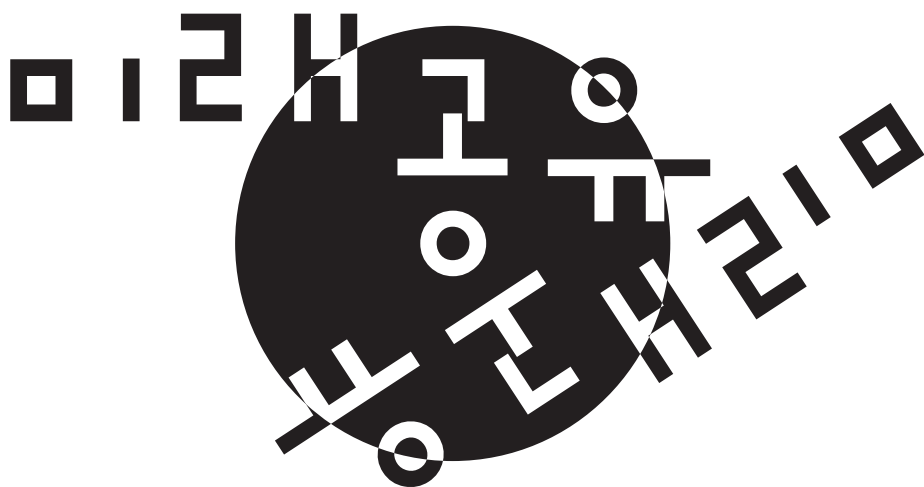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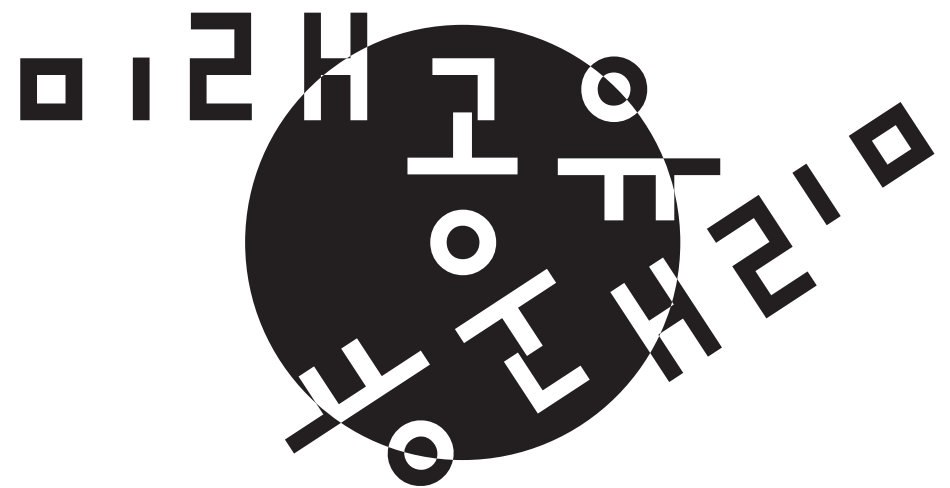






미래공유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2023 학술세미나 자료집

차례

인사말 007

포럼 1 009 미래를 위한 현재의 공유: 어린이 미래 교육을 살펴보다

사례발표 1 014 '현대어린이책미술관'의 설립과 운영
노정민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관장

사례발표 2 026 '법씨학교 제주학사'의 설립과 운영
이영이 | 법씨학교 제주학사 교장

사례발표 3 034 파주타이포그래피배곳 '파티(PaTI)'의 설립과 운영
안상수 | 파주타이포그래피배곳 날개

사례발표 4 042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전시 운영 사례
최진실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사

사례발표 5 052 미리 걷는 미래 교육: 미래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임정희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포럼 2 065 미래를 위한 현재의 공유: 새로운 교육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기조강연 070 들깨우다: 스스로 익힘, 저절로 배움
김종길 |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관장

사례발표 1 084 대안교육이 진짜 '대안'입니까
함은세 | 청년 정치 기획자

사례발표 2 094 장기전에 대하여
조신철 | 전통미장 활동가

사례발표 3 104 발걸음이 모여 만드는 길: 대안교육 그 이후의 삶
조채윤 | 어쿠스틱 이야기 콘서트 진행자

토론 112

인사말

2023년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이 개관 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비록 개관 7주년이 되었지만, 박물관은 조례상 2022년 4월부터 독립기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초대관장으로 부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장이 된 이후 지금까지 박물관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으며, 앞으로 그려가야 할 박물관의 모습은 무엇일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어린이박물관’이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박물관을 찾는 주요 관람층이 어린이이고, 이 어린이들은 점차 성장하여 미래의 어른이 되기 때문에 박물관과 박물관 콘텐츠는 일종의 배움터이자 교육적 경험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박물관교육학의 틀보다는 어린이를 핵심에 두고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박물관의 모습을 그려보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3년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학술 세미나는 이러한 결론에서부터 시작된 행사입니다. 어린이 미래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과 다양한 교육 방식을 몸소 체험한 청년들을 모시고 그들의 경험과 살아온 방식을 듣는 값진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들의 경험을 엮은 이야기 그물을 자료집의 형태로 담아낸다면 제가 고민해 오던 어린이 박물관의 형상을 보다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이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미래의 어린이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되셨나요?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장 김종길

포럼 1

미래를 위한 현재의 공유:
어린이 미래 교육을 살펴보다

일시: 2023년 06월 29일 (목) 14:00
장소: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강당





‘현대어린이책미술관’의 설립과 운영



노정민 | 현대어린이책미술관장

안녕하세요.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미래 교육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 현대 어린이책미술관이 발표할 수 있도록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대어린이책미술관은 판교에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우리 미술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역순으로 보여드리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교육에 관해 논의할 중요한 가치들은 굉장히 다양하지요. 현대어린이책미술관에도 다양한 전시 교육, 또 그 이외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시를 중심으로 우리 미술관이 어떠한 가치를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엉뚱한 그림이지요?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가 100장이라서 빠르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존 클라센과 맥 바넷 전시^[1]입니다. 존 클라센은 캐나다 출신이고, 맥 바넷은 미국 출신 작가^[2]입니다. 포스트모던 그림책의 대표 작가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은 칼데콧 Caldecott상 등 여러 분야의 상을 수상했어요. 여기 이 단어들을 보시면 이들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포스트모던이라는 개념은 이미 30년 전에 나온 것이지만, 이 개념을 그림책 분야와 접목한 작품은 사실 흔치 않습니다. 전통적인 어린이 그림책이나 동화책에서는 열린 결말로 끝난다든지, 죽음이나 블랙코미디를 다루는 일은 사실 쉽게 찾아볼 수 없었죠.

저희 전시 공간을 보여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왼편에는 작가들의 작품 성향을 분석한 자료들이 있고요. 작가들과 여러 작품을 함께한 글 작가, 그림 작가입니다. 이미지가 중첩되는 느낌을 표현하고자 저렇게 가운데에 세팅을 했어요.^[3] 이 작품 같은 경우 한 아이가 어두움을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자꾸 지하실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두렵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지하로 내려가 봤더니 오른쪽에 보이던 서랍 속에서 전등

0
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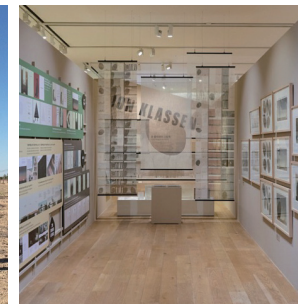
[1]



[2]



[3]



의 전구가 여러 개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둠에 대한 공포를 극복한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4] 저희 전시 공간은 5층, 6층 두 개로 나뉩니다. 각각 80평 정도 되는데요. 5층에서는 존 클라센과 맥 바넷의 작품을 따로 나눠 보여주고, 6층에는 이들의 협업작품과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전시 활동들을 보여주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6층 전시를 보고 계시고요. 저희는 항상 어린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합니다. 애플TV에서 지금 시작된 <Shape Island>라는 시리즈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클라센과 바넷이 최근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방한 관련 사진을 몇 컷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시실인데요. 맥 바넷 작가^[5]의 작품이죠. 이 작가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SNS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어린이들이 계속 재미있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독려했죠. 그리고 이 공간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림책 작가와 어린이 교육가가 함께 만든 것인데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사는, 교육 기회가 충분치 않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과 후에 와서 글쓰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마련한 공간^[6]입니다. 이 두 사람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곳을 이러한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기의 테마는 '타임캡슐 트레블'인데, 상업지역에 만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편의점을 만든 거지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상품들을 팝니다. 예컨대 아까 보셨던 오른쪽에 있는 알은 '공룡의 알'이라는 건데요. 일반인들은 저런 상품들을 사고, 스태프 온리 Staff Only 쪽말이 붙은,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린이들이 글 쓰기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다음 섹션을 보여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작가들은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예술가 중 하나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어린이들은 최고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즐길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것을 보여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작품, 최고의 작가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우리 현대어린이책미술관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한 계획을 마련하여 다양한 계층의 성인과 어린이, 그리고 출판사와 협조하여 흥미로운 기획을 늘려나가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작가가 관련 포스트를 올렸는데, '종아요'를 6~7천 개 정도 받았습니니다. 그리고 'LA에서도 이런 전시 볼 수 있다면 좋겠어요' 이런 댓글이 달렸던데, 정말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들은 굉장히 알고 싶어 하며, 호기심이 많은 존재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책미술관의 책들은 굉장히 낮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어린이가 누워있는 것도, 이렇게 저희가 한 3.9m거든요.^[7] 이렇게 보시면 작품들이 굉장히 낮은 눈높이로 걸려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보는 법을 저희가 보여주는 거지요.

이런 것을 보시면 '시각적으로 강렬한 이미지로 눈길만 끌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공간과 활동을 구성할 때 늘 어린이들이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것은 샘과 데이브가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땅을 파는데, 다이아몬드는 사실 옆길에 있는데, 그 사실은 강아지들만 알고 그들은 몰라요. 그래서 계속 다른 길을 파거든요. 아이들이 좁은 공간에서 땅을 파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했습니다.^[8]

그다음 것은 데이비드 위즈너라는, 굉장히 훌륭한 작가입니다. 수채화 작업을 하는 작가고요. 하늘에서 채소들이 떨어지는 내용의 그림책을 그렸어요. 그래서 텐트 같은 데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채소들이 떨어질 것을 상상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어린이들이 편안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까 작품을 낮은 눈높이로 걸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공간 같은 경우도 건축에 대한 전시였거든요. 중간에

0
1
6

0
1
7

[4]



[5]



[6]



[7]



[8]



상들리에를 거꾸로 놓은 것처럼 늘어져 있는 것들은 가우디에 관한 공간입니다.^[9] 안 토니 가우디가 유기적인 선이 돋보이는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요. 과연 '저런 선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하는 것이 핵심인데, 아이들이 직접 추를 달아보면서 내가 만든 선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도록 했어요. 저희가 단순히 시각적, 체험적 몰입감만을 고려해서 전시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늘 작품의 의미와 연결된 구성을 고민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칼데콧이 사랑한 작가들. 칼데콧상은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아동문학상 중 하나로, 역사가 70년 정도 됐습니다.^[10] 놀라운 사실은 1962년도에서야 비로소 흑인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는 그림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때로 세상의 변화는 굉장히 느리죠.

현대어린이책미술관은 늘 질문하는 미술관이고 싶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린이들은 항상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대화하고 싶어 하고요. 친구랑도, 엄마와도, 다른 가족과도, 학교에서도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해요. 우리 미술관에서는 학교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손을 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술관은 어린이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보호자가 동반해야 해요. 우리 미술관에 온 어린이와 보호자가 좋은 대화를 시작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그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존 클라센의 그림책입니다.^[11] 큰 물고기가 아주 귀여운 모자를 쓰고 있지요? 그런데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잠든 줄 알고 자기가 훔쳐서 쓴 뒤 '모르겠지?' 이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약간 화난 듯한 큰 물고기가 쫓아가고 있어요. "너 작은 물고기 모자 쓴 거 봤어?" 묻지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 게가 이런 손가락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뺏거든요, 그런데 모자를 어떻게 뺏었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트모던 그림책의 한 성

향인데요. 그 결과 결말을 각자 생각하게 합니다.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뺏었다.' 혹은 '작은 물고기가 놀라서 도망가다가 모자를 떨어트렸다. 그래서 큰 물고기가 주운 거다', '작은 물고기가 모자를 훔친 걸 사과하고 돌려줬다', '큰 물고기에게 똑같이 생긴 모자를 주고 작은 물고기는 다른 곳으로 갔다' 등등. 또 기타답변이 있어요. 어린이들은 다 다르게 답변합니다.

또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주인공에게 답장하기도 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은 저희가 전시에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유도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편지 쓰는 칸, 답장 쓰는 칸이 나뉘어 있는데, 한 친구가 편지를 쓰고 가면, 다른 친구가 답장을 쓰는 거예요. 전에는 빨간 펜과 파란 펜을 놔두고 빨간 펜으로 질문을 하면 파란 펜으로 답장하는 그런 활동도 기획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콜라주는 재미있다', '현대미술 관련해서 이런 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글씨체가 다 다르지요?^[12] 아까 제가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에게 그들이 지닌 아주 예민한 감수성 같은 부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선택하는 데도 어떤 아이들은 알아챌 것 같아요. '이건 글자가 꼬불꼬불해서 재미있어.' 사실 글자를 알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생겨서 나는 글꼴어'라고 말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거고요.

저희 관찰자 월 텍스트와 같은 부분.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아래 버스에 앉아있는 승객 중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찾아볼까요? 전시실 공간에 있는 이 작품은 버스 속 풍경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건 남윤원 작가의 작품이고, 저기 작가 설명이 있죠. 그다음 동그라미 부분은 학예사가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한 문장으로 쓴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부분은 어린이나 부모님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만이 지닌 아름다운 빛은 어떤 색깔일까요?' 부모님이 보여야 되는 문장이겠지요.^[13]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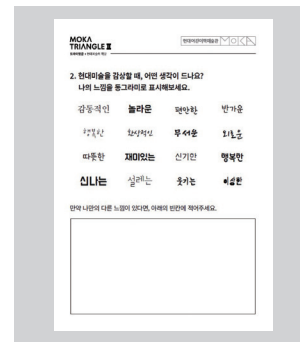
[10]



[11]



[12]



[13]



이건 <타라의 손>이라는 작품인데, 작품 수가 많았습니다. 어린이들은 저기 동그란 길은 구멍이에 빠져버린 동물들을 보면서 다 함께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14] 사실 미술관에 온 어린이들은 굉장히 축복받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인 보호자와 함께 유료미술관에 온 거니까요. 그런데 미술관에 오신 부모님이나 보호자는 굉장히 난감해하실 때도 있어요. 사실 아이들과 어떻게 작품을 감상해야 할지 잘 모르시니까요. 그런 경우 저런 문구가 굉장히 도움이 되지요. 아이들이 먼저 알아채고 질문에 답을 하기도 하고요. 보호자 분들은 질문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아이에게 “아까 그거 봤어?” 하고 아이에게 묻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했었는데,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도 더 생각해 보면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기도 하겠지요. 어떤 학습을 위한 게 아니라 아이와 보호자에게 대화의 고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미술관은 그런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감상 포인트 알려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적으로 분리해서 보여드려요. 어떤 것이 작가에 대한 정보인 건지, 어떤 게 대화와 생각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질문인지 구분하실 수 있게 저희 나름대로 글씨체를 다르게 한다든지, 박스나 라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작가는 벼룩에 관한 이야기를 썼는데, 벼룩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벽면에서 찾아보기를 하자, 이런 재미있는 활동을 넣기도 합니다.

우리 미술관은 2015년 8월에 개관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한 전시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전시를 많게는 다섯 개까지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세 개 정도 합니다. 저희는 전시할 때마다 매번 공간을 바꿉니다. 그래픽부터 전시 활동도 모두 바꾸고, 전시 활동도 여러 가지 레벨과 방향에서 점검해봅니다. 글쓰기는 물론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녹음하기 등도 있어요. 다양한 활동을 한 전시에서 경험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칼데콧 전시나 봉주르 팝업 같은 전시는 저희가 프랑스로 직접 가서 작가들을 만나고 팝업 작품을 기획합니다.^[15] 지금 왼쪽에 보시는 ‘언프린티드 아이디어 UNPRINTED IDEAS’는 우리 미술관이 어느덧 4회차를 맞고 있는 신진작가지원 프로젝트입니다.^[16] 격년으로 하는 이 프로젝트는 올해도 진행하고 있어요. 작가님들도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과 활동과 워크숍 등을 준비해 주세요. 저희는 최고 작가들의 작품은 물론, 이런 신진작가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교육. IBBY라는 국제기구에서는 하나의 그림책을 보여줄 때 전 세계의 그림책을 보여주는데요. 저희는 도서관이 아니지만, 그림책 속에 담긴 원화 한 점이라도 보여주려 하고, 그림을 어떻게 즐겁게, 자세하고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지 알려주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전시를 보여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2015년부터 꾸준히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어린이들한테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다. 꾸준히 해야 한다, 성실히 하다 보면 내가 모르던 그 이상의 기쁨을, 그것이 꼭 학습과 관련된 효과가 아니라도,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2015년 개관한 이래로 정말 같은 자세로, 훌륭한 학예사 연구원 선생님들과 그리고 여러 협력업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영재를 육성하는 미술관이 아닙니다. 교육에서도 그걸 지향하지는 않아요. 그 보다는 많은 아이를 위한,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미술관이라는 걸 보여드리려 했습니다. 이건 어린이들이 만든 그림책입니다. 저희와 6년 동안 100여 권의 그림책을 자기의 스토리로 풀어낸 작가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17]

이건 저희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6년째 하고 있어요. 사실 한두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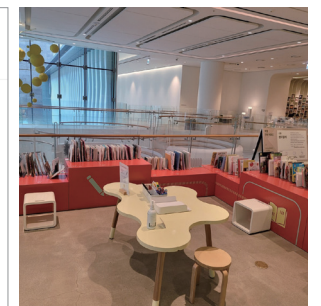
[15]



[16]



[17]



학교 정도만 하고 있어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종종 발달장애 아동들입니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을 간결한 활동으로 다시 고안하여 진행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도 행복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조해주시는 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오세요. 모든 아이에게 기회를 줘야 하기에 앞으로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전시 오픈 전에 예비관람객들에게 대본 모집을 한 적이 있어요. 예컨대 '나의 1학년'을 주제로 자기의 1학년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었지요. 그런데 무려 18개나 대본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이것을 전시해 보여드린 적도 있어요. 저는 관람객 참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늘 함께하는 미술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 미술관입니다. 판교역에서 3번 출구로 오시면 되고요. 현대백화점이 문을 연 시간에는 지하철 지하통로 2번 출구로도 오실 수 있어요. 저희가 운이 좋게도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의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있어요. 현대백화점은 어린이 복지 관련해서 35년 이상 노력해온 바가 있어요. 사실 큰 기업들은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해야 하고, 또 하고 있지요. 현대백화점에서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한 미술관을 만들고자 한다. 그리고 또 그림책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밝혔기에 정말 급하게, 2014년부터 부랴 부랴 모든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미술관 문을 열 수 있었어요.

저희는 김찬중 건축가와 함께 작업했습니다. 굉장히 유능하신 건축가이시죠. 아까 보여드린 그 열주는 하나하나 모양이 다릅니다. 저것의 재질은 FRP고요. 요트, 배를 만드는 사람이 물딩을 하나하나 만들고,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액체를 부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통통 두드리면 소리가 납니다. 외부는 모두 하나의 본체로 만든 것이고요. 안쪽은 높이가 9미터 정도 되는 두 개의 본체로 연결해서 만들었습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컴컴한 건축 현장 가운데를 안전모 쓰고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입구입니다. 버블스텝이라고 하는 계단인데요.^[18] 이것도 역시 보시면 페인트를 도색한 것 같지만 사실 다 금속입니다. 판재를 두들겨서 만

들었고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저기 동그란 데에 실제로 앉아서 그림책을 봅니다. 굉장히 천천히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고요. 사실 저게 다 곡면유리라서 재료 발주 같은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기에 하얀색으로 구부러진 U자형으로 세워진 것은 보기 싫게 생겼지만, 어린이 안전을 위해 기본설계 이후에 보강설계를 추가해서 만든 겁니다. 어린이 공간 설계는 쉽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건 기본이고, 어떻게 안전하면서도 작품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을까? 실무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지요.

저희 2층으로 올라가는 램프입니다.^[19]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천천히 내려오면서 외부를 보실 수 있는 정원이 있어요. 저희가 운 좋게 현대백화점 판교점의 패밀리 가든이 딱 보이는 공간이에요. 미술관의 주요 공간은 뭐니 뭐니 해도 '열린서재'입니다.^[20] 이곳엔 7,000권 정도의 그림책이 있고요. 지금은 어떤 서점에 가셔도 큐레이션으로 키워드별로 책을 분류한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사실 저희는 2015년도부터 어떤 논문에서 힌트를 얻어 큐레이션을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전복적이고 도전적인 시도였죠. 주변에서는 다 만류했어요. 예컨대 '나'라는 주제로 시작해 나의 하루, 나의 친구, 나의 학교, 나의 세상, 우주, 옛이야기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확장합니다. 어린이가 원한다면 한 칸, 한 칸 자기 스스로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여주는 공간이 바로 열린서재입니다.

그다음에는 저희 교육실입니다.^[21] 종이접기 주제로 해서 보여지는 거고요. 안에 노란색 공간은 마커 같은 걸로 했을 때 저희가 지우개 같은 걸로 지우면 지워질 수 있는 공간이고요. 리바트 가구 업체에 따로 주문을 해서 안전 테스트와 재료, 여러 치수 같은 것을 다 점검해서 만들었던 공간입니다.

현대백화점에서 회전목마를 설치했어요. 미술관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입장권 티켓

0
2
2

0
2
3

[18]



[19]



[20]



[21]



과 같은 수량의 회전목마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굉장히 즐거운 경험을 하고 돌아가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22] 밤에 찍은 우리 미술관의 모습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전기를 아껴야 하기도 하지만, 밤에 아무도 없는 가운데 빛을 머금고 있는 미술관이 아름답지요. 마치 충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밤 동안에 열심히 빛을 모아서 아침이 되면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나눠주는 거죠. 토요일 아침에는 오픈런 하듯 입장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한 교육이나 전시를 보여드리는 기쁨이 큼니다. 미술관은 이렇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씨학교 제주학사'의 설립과 운영



이영이 | 법씨학교 제주학사 교장

법씨학교는 2001년에 개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대안 초등학교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시절에 학교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안고 부모님들과 함께 열심히 교육운동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빨갱이 소리를 듣기도 했죠. 그리고 그 부모님들 아이들은 학교 가서 이유 없이 혼나고, 저희는 1995년부터 교육개혁운동을 했고, 1998년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공교육 체계 안에 들어가서 학교를 좀 바꿔보려고 했죠. 근데 그것 역시도 힘들더라고요. 단순히 교복 공동구매라든지 앨범 공동구매라든지 이런 일만 해도 빨갱이 취급받던 때가 그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기존의 체제 안에서 변화를 꾀하는 것보다, 체제 바깥에서 '이런 것이 교육이다'라는 걸 보여주어야 바꿀 수 있겠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법씨학교를 만들었죠. 그때는 이게 불법인가 아닌가 하는 개념도 없었어요. 일단 학교를 개교하고 나니까 교육청에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죠. "학교 설립자에게 3,000만 원의 벌금 혹은 그만큼의 옥살이를 해야 하는데 당신 알고 있었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뭐 저는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돈도 없었으니까 "그냥 잡아가려면 잡아가세요" 했거든요. 정말로 잡아가지는 않았고요. 2002년에는 한국에 대안학교가 세 개 정도가 생겼고, 2003년이 되니까 정말 우후죽순으로 등장했죠. 그때부터 대안 초등학교가 폭발적으로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의 대안학교 지형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학교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갔어요. 아이들은 정말 역동적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다르게 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저희는 교사 연수를 정말 밀도 높게 진행하는데요. 2006년 교사 연수 진행할 때, 제가 이렇게 제안했죠. "현재의 교과과정을 다 없애자. 우리도 공교육을 받은 사람들인 지라, 교육과정을 짤 때도 공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다 없애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그러자 선생님들은 "아니다. 그건 우리한테는 너무 큰 도전이다"라고 하더군요. 한꺼번에 모든 걸 타파하려 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조금씩 준비해서 나아가자고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0
2
7



우리 학교에는 다섯 살부터 중학교 3학년 아이들까지 있어요. 2012년에는 중3 남자들이 다섯 명이 있었는데, 제가 그 아이들을 강원도 화천에 물도 전기도 없는 곳으로 보냈어요. 그 아이들은 매일 게임만 하고 무기력하게 지내는, 전형적인 중학교 남자애들이었죠. 그런데 화천에서는 아이들이 게임도 못 하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교육과정이라는 것조차 전혀 없었고요. 담임 선생님과 아이들 다섯 명만 딱 갔으니까요. 애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방에서 뒹굴뒹굴 누워만 있었죠. 때 되면 삼시 세끼 밥을 해 먹었는데, 수도가 없으니까 계곡 가서 물 떠다가 밥하고 그랬어요. 수도만 없는 게 아니라 부엌도 없어서 애들은 돌멩이 두 개를 주워와서 그 위에 솥을 걸고 밥을 했어요. 어느 날은 비가 왔어요. 비가 오면 밥을 못 해 먹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막 돌아다니다가 거적매기 같은 걸 주워다가 대충 얼기설기 걸고 밥을 해 먹더라고요. 그다음엔 시간이 많으니까 뭘 하나면요, 아이들이 화덕을 정교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 불길의 막 튀어서 한번 밥을 하고 나면 화덕을 부숴야 했거든요. 아이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결국에는 아주 훌륭한 화덕을 만들었어요. 어느 날은 계곡에 내려가 샤워를 하는데, 아이들이 샤워장을 만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내 녀석들만 있는데 샤워장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들도 문화인이기 때문에 필요하대요. 바깥에서는 안을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구조로 샤워장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다가도 옷통 벗고 산야를 돌아다니면서 박쥐를 잡으러 다니기도 하고 그랬죠. 채취도 직접 했어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요. 가지고 간 거라고는 쌀이랑 간장, 소금, 고추장 이런 기본적인 양념뿐이었어요. 허구한 날 머릿대 뜯어 먹고, 어떤 때는 취나물 뜯어오고 하면서 야생의 시간을 살았어요.

그렇게 한 학기를 살고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힘을 지니게 됐다는 게 느껴졌어요. 교사들이 그걸 보면서 강렬한 영감을 얻었어요. ‘아, 이게 되는구나.’ 아이들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무언가를 깨운 것이죠.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주어져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냥 생명이 이끄는 대로 하는 거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요. 그 애들은 유치원부터 우리 학교 다

녔으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농사였어요.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상추씨를 밭에 심어놓고 맨날 가서 들여다본 거죠. 이게 언제 싹이 나오나 하고요.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한 학기를 살고 완전히 달라져서 돌아왔고, 선생님들은 그 변화를 직접 마주하고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교과를 없애자, 교사가 하는 역할을 최소화하자”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믿지 못했는데 말이죠. 아이들이 그 강화도 산속에 있을 때 선생님이 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냥 애들을 놔둔 거지요. 밤 되면 애들이 산에 가서 잔다고 직접 아지트를 만들고, 거기서 별 올려다보면서 자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죠. 그 한 학기를 지내고 온 아이들과 그 담임 선생님이 교육과정을 주도적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했어요. 수학이나 영어 같은 과목들은 사실 완전히 통합적인 수업으로는 이루기 어렵지요. 그런 과목을 제외하고 다른 교과들은 전부 통합하게 됐어요.

학교를 제주도로 옮긴 이유는 화천에 불이 나기도 했지만, 제주에 있는 상록수림을 보면서 영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연히 한 달간 제주도로 요양하러 갔을 때, 함덕 위쪽에 있는 동백동산이라는 곳에서 지내게 됐거든요. 그곳은 남한에서 가장 큰 상록수림이에요. 난대성 상록수림이라 겨울에도 푸른 숲의 모습을 유지하는 곳이죠. 숲의 바다라고 불러야 할 정도의 그 숲을 보면서 ‘이 숲이 아이들을 키워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품게 됐어요.

제가 거주하던 그 마을이 바로 선흘이라고 하는 제주도의 아주 오래된 마을이에요. 지역 공동체성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죠. 이 마을이 아이들을 잘 키워줄 거라는 확신을 얻게 됐어요.

또 다른 이유는 제주도에서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서울이나 다른 곳에 살다가 제주도로 오신 분들 참 많지요. 육지에서 아등바등 사는 게 싫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으로 살고 싶은 어른들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다 보니까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관대해요. 배움을 기꺼이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저희를 먼저 찾아와주시거나, 아니면 거의 다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거리에서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어? 요즘에도 저런 아이들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아이들에게 다가와서 "나는 제주도 신화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너희와 제주도 신화를 공부해보고 싶다.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업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인연이 쌓여서 함께 여행도 가게 되고 그렇게 펼쳐지는 거지요.

우리 학교 아이들이 졸업하고서도 계속 제주에 남아있고 싶다고 해서 제가 저와 함께 법씨학교를 만들었던 설립자 선생님들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아이들이 제주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하는데 땅이 없다"라고요. 한편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서 돌집을 지어봤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주도에는 돌이 많아. 그러니까 땅만 있으면 우리가 직접 집을 지을 수 있어.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그 돈을 모아 땅을 사자." 자기들끼리 모여서 맨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아르바이트 한 돈이 얼마나 되나요?" 그래서 제가 답했죠. "3,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 한 사람당 거의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돈을 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더군요. "그 돈으로 땅을 사서 우리 같이 살 집을 짓고 싶어요. 졸업한 후에요." 하지만 아무리 제주도여도 3,000만 원으로는 집 지을 땅을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졌지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애들아. 그 돈 갖고는 어렵도 없어." 이렇게 지나가는 투로 말했죠. 그런데 아이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재밌을 것 같지 않니?" 그러면서요. 그래서 저는 '아, 내가 너무 일 벌여놓으면. 나 이제 교장 그만둬야 할지도 몰라. 애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 나는 그래도 어른인데,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내적 갈등을 엄청나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설립 초창기 부모님들에게 편지를 썼지요. 이렇게 적었어요. "3,000평 정도의 땅을 사서 1,500평쯤은 당신들이 같이 집을 짓고 살아라. 항상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으셨냐. 그리고 나머지 1,500평을 아

이들한테 줘라."이렇게 해서 출자를 받았어요. 그렇게 3,000평 땅을 마련했고요. 여긴 저희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고요. 어디서 저도 모르는 사진을 가져오셨네요. 엄청나게 커다란 돌집 두 채를 지었어요. 그렇게 마을이 만들어졌어요. 이걸 야외에서 활동하는 사진들이고요.

지금 아이들이 제주에서 생활하는 학교, 아이들이 지은 돌집, 그리고 이렇게 법씨마을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마을공동체가 이렇게 우연히 형성되게 된 거예요. 저희가 돌집을 건축하려 하고 있을 때 건축가 승효상 선생님이 오셨어요. 아이들이 돌집에 쓸 돌을 깎고 있는 걸 우연히 보신 거죠. 청소년들이 직접 하나하나 돌을 깎아서 집을 쌓아 올린다니 너무 신기하잖아요. "와. 진정한 집은 이런 거다." 하시면서 감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체 설계를 맡아주시겠다고 제안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의견이 갈렸어요. 왜냐하면 승효상 선생님이 워낙 대가시니까, 건축 디자인에 대해 자기 철학을 너무 완강하게 주장하시면 어쩌나 걱정한 거죠. '우리 생각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고요. 그럼에도 많은 분이 승효상 선생님이 설계를 맡아주시는 걸 동의하셔서 진행하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승효상 선생님 덕분에 제주의 하늘을 가장 잘 담아낸 건축물로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하늘을 보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어제 그랬어요. 어제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친 시간이 11시였어요. 그 늦은 밤에도 저희는 일정을 끝내고 나면 절을 해요. 명상으로 절을 합니다. 절하러 바깥에 나갔는데 하늘에 구름이 너무나 신비로운 모습으로 떠 있는 거예요. 용도 아니고, 뭐랄까 추상적인 형태로 구름이 떠 있고, 그 가운데 마치 눈처럼 반달이 박혀있었죠. 별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희는 선홀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절을 하는데요. 절을 하고 나면 누가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다들 하늘을 바라보고 눕습니다. 그 바람과 저 밤하늘과 별빛을 한눈에 가득 담고 그 순간을 즐기는 것이지요. 그 순간이야말로 정말 충만한 시간이에요.



근대교육의 관점에서는 아이들을 미숙한 존재로 바라보죠. 무언가를 배우고 채워서 완성해야 하는 존재로 보면서 교육과정도 그에 맞춰서 구성하죠.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아이들은 '진리'나 '정의' 같은 단어를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예컨대 우리 본교 아이들은 제주학사에 오는 걸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일한다고 하고, 선생님의 코멘트도 엄청 세다는 얘기를 들어서죠.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그래서 한 해는 제가 본교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때 "아이들은 진리에 자기 전체를 헌신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순간 그 말을 듣는 아이들의 눈빛이 정말 반짝반짝했어요. 그 해에 제주학사로 아이들이 제일 많이 왔어요. 두려워서, 용기를 내지 못해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중도 하차하는 거죠. 하지만 그 해엔 중퇴하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아이들이 자기들이 지닌 모습 그대로, 원래 가지고 있는 생명의 원리를 스스로 발견하게끔 돕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일상에서 잘 발휘되도록 촉진하는 일이 선생의 역할인 거고요. 그것과 자기 주도성이 결합해서 여러 방향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여러 장을 만들어주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학사 이야기는 풀어놓자면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몇 시간을 이야기하라고 해도 할 수 있지만, 시간제한이 있으므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주타이포그래피배곳 '파티(PaTI)'의 설립과 운영



안상수 | 파주타이포그래피배곳 날개

반갑습니다. 날개라고 하고요. 파티에서 저는 교장을 맡고 있는데 교장을 날개라고 합니다. 제 역할은 배우미와 스승들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름을 붙일 때 교장이나 학장이나 이런 말을 붙이면 그 말에 묻어오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날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날개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실은 김종길 관장님께서 굉장히 가벼운 자리라고, 너댓 명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자리. 오늘 아침에 와서 가장 아주 공식적인 환대를 받았고요. 또 이런 자리를 빌려서 파티 얘기를 가볍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긴장되네요.

『늦지 않다』라는 문구입니다.^[1] 사실은 제가 파티를 시작하기 전에 거의 5~6년 동안 벽에 붙여놔던 작은 쪽지입니다. A4용지에 프린트를 해서 붙여놔어요. 제가 겁도 많고 소심하고 그런데 저를 자꾸 이렇게 단련하는 거지요. 새로운 학교를 만들고 시도하는데 있어, 늦었다고 생각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통해 저 스스로 늦지 않다고 늘 세뇌시켰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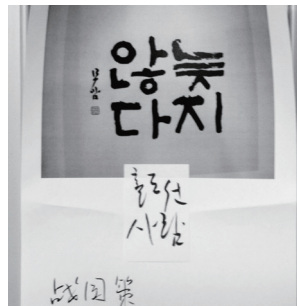
제 후배 하나가 전시를 하는데 저 작업이 끌려서 산 작업입니다.^[2] 『생각 그만 하고 확 해 버려』 이런 말인데, 이것 또한 제 서가에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느 시점에 결행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타고 있던 기차에서 내려서 작은 차로 갈아탔습니다.^[3] 이게 파티의 시작입니다.

파티는 이렇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동아시아의 이 나라에서 또 이 땅에서 배우미하고 스승들이 일과 삶을 함께 멋지어가는 열린 배곳”. 여기서 ‘멋지어 간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찾아낸 디자인의 우리말입니다. 멋을 짓

0
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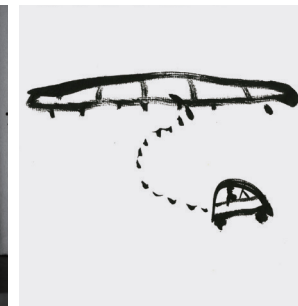
[1]



[2]



[3]



는 거지요. 사람이 의식주를 행하는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짓고, 집도 짓고, 밥도 짓는. 농사도 짓고, 글도 짓고, 웃음도 짓고, 심지어는 죄도 짓고요. 더 나아가서는 업까지 짓습니다. 인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동사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말에, 그 멋을 지어가는 거지요. 멋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디자인학교입니다. 배곳이라는 말은 주시경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 조선 어강습원을 한글 배곳이라고 이름을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배곳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17년에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했던 전시입니다.^[4] 파티 다섯 해 되던 해에 저희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정리한 다섯 해의 경험을 쌓아서 『파티 말 열다섯』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 『파티 십오언』을 만들었습니다.^[5] 그런데 이것은 오행의 구조를 따른 거거든요. 타이포그라피라는 것은 한글 글자를 부리거나 아니면 글자를 멋짓거나 글자를 부려서 멋짓는 분야입니다. 디자인의 가장 기초분야가 타이포그래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한글이잖아요. 그런데 한글이 음양오행의 원리를 따라서 멋지어졌다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오행의 구조에 저희들이 파티의 열다섯 개의 햇말. 저희들은 슬로건을 햇말이라고 하는데요. 햇불이 들어서 밝히는 빛이라면 말을 들어서 저희 생각을 밝히는 것이 바로 파티의 열다섯 가지 햇말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마음이 있고, 또 북쪽에 기억이 있고요. 남쪽에 리움이 있고, 그다음에 서쪽에 시웃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위에 따라서 배치. 이것을 그대로 디자인하면 되는데 글자를 읽히기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세로로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삼무가 있고요. 무재산, 무경쟁, 무권위입니다. 다른 것은 다 아실 텐데, 무권위라는 말이 논란이 됐었어요. '권위 없이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제가 파티를 준비할 때 잠깐 미국에 있는 대학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가르친 적이 있었

는데 그때 저를 초대한 그쪽의 가장 어른인 교수님이 자기 집에서 한 열흘 묵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어땠겠냐, 그래서 제가 집에 묵으면서 그 분과 계속 대화를 저녁마다 했는데 돌아오는 마지막 날 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일주일 이상 같이 교육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그분은 한국에 몇 번 오셔서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한국은 권위라는 것 때문에 교육이 상당히 방해받고 있다. 사실 권위라고 하는 것을 탈피하면 그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실천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실행한 것이 바로 호칭에 대한 거예요. 날개라고 하는 말도 거기서부터 태어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3시웃이라고 있는데 사람, 세종, 그다음에 손. 특히 손에 대한 것. 생각하는 손. 그러니까 사람의 상상력이나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나온다는 거죠. 아까 이영이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몸으로 부딪히고 하는 과정 속에서 손으로 가서 돌집을 짓고, 아니면 화덕을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새로운 창의력이 늘 이렇게 태어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사용해 봐야 그다음에 새로운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 봐야 새로운 어떤 것은 잘 태어나지가 않더라고요.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창의력에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손'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만든 말은 아니고 이미 다 있었던 말인데, 특히 저것을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학교를 시작할 때 모든 것을 직접 만들었어요. 배우미들이 자기가 쓸 책상과 의자를 직접 만드는 등 저희들이 하는 거를 스스로 다 만들었고요. 여기 계시는, 저희 스승들이 여러 분 와 계시는데 그 중에 뿌리(김건태)가 그런 것을 다 기획하고 마련했어요. 재개발지구에 가서 버리는 것을 트럭을 가지고 실어다가 자기가 다 손으로 만들고 변형하고 해서.^[6]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환경은 스스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 환경 자체가 다른 것과 확연하게 구별이 되었고 파티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어요. 저희들은 이른바 독립 대학과정인데요. 비인가입니다. 학위는 없고요. 그런데 초등과정의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만든 거나 대학을 만든 거나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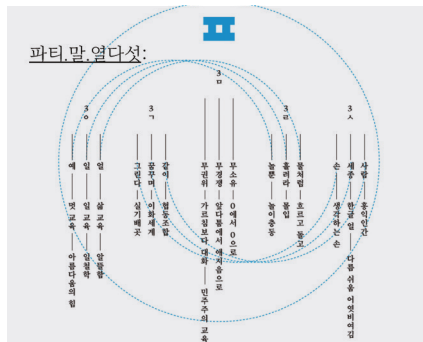
0
3
6

0
3
7

[4]



[5]



[6]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시작하기 전에 몇 번이고 다른 대안학교들을 찾아 많이 둘러봤 습니다. 다 만나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어려움에 대해서, 아니면 또 어떤 보람에 대 해서 이런 얘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 세 가지는 같이, 꿈꾸며, 그린다, 라고 하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협동조합 이고요. 경기도에서는 1호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법이 통과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됐는데, 경기도 1호 교육협동조합으로 지금 법인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실 기 학교입니다. 디자인 미술학교지요, 대안학교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궁극 적으로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디자인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 다.[7]

파티 십오언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늘 얘기해 왔던 것을 조직화해서 그린거예요. 이것 은 한의학을 가르치는 한 스승과 같이 그린 것인데요, 파티에서는 동의학을 교양의 제 일 첫 과목으로 하거든요. 동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대개 대학에서 교양과목이라고 하면 대학교과라든가 예술학이라든가 그런 어떤 기초적인 인문학을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몸을 공부하는 것을 첫 인문 교양 과목으로 배치합니 다. 사실 인간이 사람이 몸을 떠나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테면 몸을 통한 철학 등 을 공부하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 줍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정 리한 거지요.

지금은 이 자체가 조금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5년 전에 저희들이 도식화한 거고 요. 독일에 바우하우스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딱 100년 전에 세워져서 13년 간 지 속을 했던 학교인데요. 그 학교가 13년 동안 지속을 했지만 그 후에 지금까지 거의 100 년 이상 전 세계의 미술계, 아니면 여러 교육계, 창의적인 교육의 거의 역사적인 전범이 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바우하우스의 연구원(토어스텐 블루메)[8]이 파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와서 첫마디가, 그 분이 한 첫 마디예요. “어른들의 유치원” 마지

어른들의 유치원 같다고 하는, 파티를 보고 그분이 한 첫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사실 그분이 파티를 보고 한 것은 아니고, 이 수식어는 바우하우스에 얘기됐던 수식어 를 저희들한테 얘기를 한 거지요. 파티가 어른들의 유치원이다. 이 말을 독일어로 하니 까 더 멋있더라고요. 이 말이 참, 좋잖아요. 대학공부를 놀듯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학은 어떤 좋은 직업을 쟁취하는 아주 피나는 싸움터처럼 돼 있잖아요. 고등학 교는 사실 더하지요. 그런데 어른들의 유치원이라고 하는, 어른들의 놀이터라고 하는 이곳. 그것이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얘기한 것을 가져왔습니다.[9] 파티에 대한 긴 글을 썼는데 그중에서 인 상적인 글을 썼습니다. 지금 이 분은 데사우 바우하우스의 수석연구원입니다. “파티는 말하자면 타이포그래피 바우하우스다.” 이렇게 그 분이 정의를 했었고요. 타이포그라 피에 내재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글에 내재한 이런 말입니다. 디자인정신의 확장성 을 추구하는 학교다. 그리고 파티는 한글문화의 경작지이다. 이런 엄청난 찬사를 저희 들에게 선물하고 가셨고요. 그 분이 또 몇 번 더 오셔서 같이 바우하우스 100주년 기념 워크숍을 한다든가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금도 긴밀하게 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파주출판도시에 있고요. 저희는 파주출판도시 전체를 저희의 캠퍼스로 생각하 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은 건물 하나를 갖고 있지만 여기저기 저희들이 평화적으로 점 거를 해서. 그러니까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 기부를 받아서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 니다. 저는 파주출판도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가 막힌 캠퍼스라고 생각합니다. 환 경자체가 이미 학교로 돼있고요. 거기에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시설, 게스트하우스, 도 서관,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는 많은 편집자들, 필자들, 저자들, 디자이 너들 등 모든 지식의 DB가 거의 완벽하게 돼있는 천혜의 캠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서 저기에 저희가 자리 잡았고요.

이것은 저희 햇불 중의 하나입니다. ‘홀려라!’[10] 무엇이든지 홀리지 않고 이를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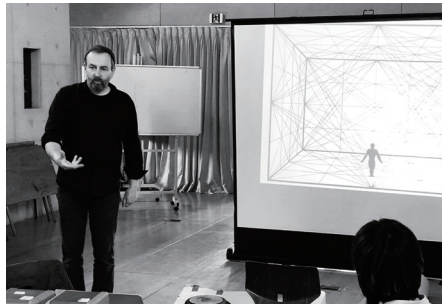
0
3
8

0
3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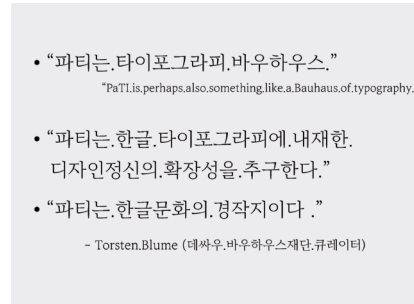
[7] 파티 이상집 모습



[8]



[9]



[10]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의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뿐'[12]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지만 유치원처럼 하여튼 놀아라. 공부도 놀 듯이 해야 즐겁고, 새로운 창의력이 등장하는 것이잖아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교육이다.”라는 말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구 중의 하나인데요. 넬슨 만델라가 26년인가 28년인가 감옥 속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 분이 감옥 속에서 계속 생각하고 생각해서 나타낸 이 말이 누가 한 말보다도 절절하게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같은 말은 간디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간디가 한 말보다도 만델라가 했단니까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것은 초반에 저희들의 어떤 커리큘럼에 대한 스케치[13]고요. 맨 밑에 보시다시피 동의학이 있고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히 동아시아라고 하는 키워드, 또 우리나라 한국, 이 땅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의 하나[14]인데요. 옆에 쌍둥이 애기가 있죠. 바로 강의를 하는 이 선생님의 얘기에요. 그러니까 유모차를 옆에다 끌고 이렇게 밀면서 강의를 하는 풍경입니다. 이러한 교실이 있을 수 있다면 저는 많은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대학에 이런 풍경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경험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경이 파티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기쁘고요. 또 이 분도 굉장히 이걸 좋아했어요. 한쪽 구석에는 아빠가 그것을 물끄러미 보면서 뿌듯해 하는 그런 정경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강의 준비하느라고 메모를 들추다가 발견한 건데[15], 제가 책을 보다가 좀 인상적인 거 있으면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독서록에다가. 그런데 옛날 강의 메모를 하다가 이게 툭 튀어나왔는데 이게 어디서 봤는지를 적어놓지 않은 거예요. 269쪽

이라는 것만 적혀있고. 이 말이 저한테 너무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라고 그래서 제가 파티에 왔는데, 또 어느 날 아마 문은 재치 있게 활짝 열리면서 저보고 가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지금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파티에 놀러 오시고요.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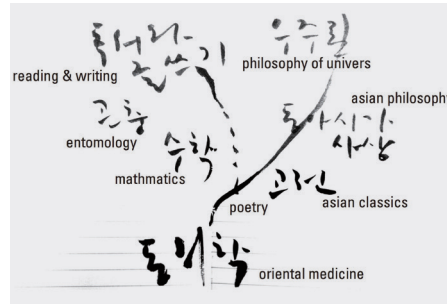
0
4
0

0
4
1

[12]



[13]



[14]



[15]

바람은.열쇠.구멍으로.들어와.. 나에게..
“오라!”고.말했다..
문은.재치있게.활짝.열리며..
“가라!”라고.말했다... 269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전시 운영 사례

최진실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사

안녕하세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최진실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에는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박물관 두 곳이 있습니다. 북부에는 이곳이, 남부 용인에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 전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시를 중심으로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어떻게 건립이 되었고 또 어떤 변화과정을 거쳤는지, 다음 1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가 상설전시 개편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앞선 발제와 다르게 조금은 딱딱한 내용일 수 있지만, 부디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2011년 9월 26일에 국공립 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최대 규모의 독립형 어린이박물관으로 개관하였습니다.^[1] 아동 발달 단계와 교육과정에 따라 한 층의 전시를 구성하고 있고, 예술·과학·사회 등 종합형 주제를 다루는 어린이박물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실 내·외부에는 현대미술 작품 전시 또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개 층으로 나뉘는데요,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을 포함해서 총 10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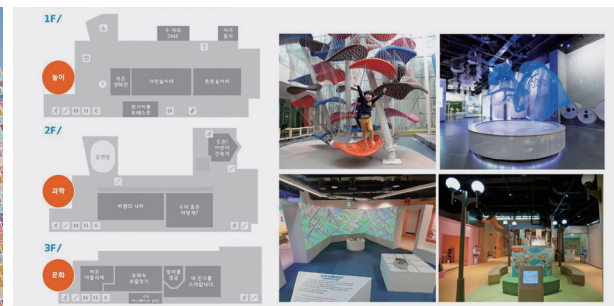
구체적으로는 층별로 교과과정과 주제영역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놀이를 주제로 한 전시실이 있고, 2층에는 주로 과학에 대한 전시실이 있고, 3층에는 사회 문화에 대한 전시실이 있습니다. 1층에는 영유아를 위한 '자연놀이터'와 신체놀이를 위한 '튼튼놀이터', 그리고 기획전시실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2층은 '바람의 나라'와 인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우리 몸은 어떻게?'라는 전시실, 건축에 대한 전시실 등 세 개의 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층에는 '에코 아틀리에'라는 교육 공간과 동화에 대한 전시실인 '동화 속 보물찾기'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소개하는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와 경기도의 멸종 동·식물을 소개하는 미디어 전시인 '컬러풀 정글'까지, 이렇게 네 개의 전시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0
4
3

[1]



[2]



또한 우리 박물관은 2~3년을 주기로 어린이와 동시대의 어린이 경험에 대한 기획전시를 개최해 왔습니다. 예술가의 새로운 생각을 소개하는 전시인 '기발한 예술가들', 그리고 어린이의 놀이 환경에 관한 연구를 소개했던 '다 같이 놀자, 동네 세 바퀴', 경기도의 DMZ를 실감형 전시로 체험할 수 있는 '두 개의 DMZ 전시' 등으로 어린이의 생활에 밀접한 주제부터 사회적인 이슈까지 다루는 그런 기획전시를 개최해 왔습니다.[3]

그러면 어린이박물관의 건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린이박물관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박물관은 호기심과 학습 동기를 촉진하는 전시 및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요구와 흥미에 부응하는 비영리적인 교육문화기관입니다. 즉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시피 어린이박물관은 교육환경으로서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비형식적인 교육기관이기도 하고, 발견과 탐색을 촉진하는 핸즈온 전시물을 통해서 전시물 기반의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습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구성주의적인 전시 설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이러한 교육적인 배경 아래에서 개관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어린이들의 꿈과 호기심,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한 체험식 박물관으로 건립되었습니다. 2003년에 경기도박물관 부설로 사회교육관으로서 첫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하반기에 어린이박물관으로 명칭이 수정되어 추진되었고, 2005년부터 경기도에서 건축과 설계를 담당해서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2008년도에 경기문화재단에 박물관건립추진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박물관건립추진단에서 전시콘텐츠 수정 연구를 진행하였고, 전시물 제작 설치를 거쳐서 2011년 9월 26일, 첫 시작부터 대략 8년 정도에 걸쳐 건립되었습니다.

개관 설계 당시 특징적인 부분은 박물관이 지향해야 하는 어린이상을 제시했다는 점이

[3]

• 어린이와 현재, 동시대 어린이의 경험과 문화에 대한 시의적인 전시를 통해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박물관의 역할 수행(2년~3년 주기)

연도	전시명	기간	내용
2011	동동~동대아(어린이아방)	11.9.26 ~ 12.2.26	'자기와 인류학' 주제의 전시
2012	기발한 예술가들	12.9.26 ~ 13.8.25	새로운 예술을 개척한 '예술가' 소개
2013	난 우리 집 거점동아리	13.9.26 ~ 14.8.24	'만화마을' 주제의 체험 전시
2014	별두 상자와 떠나는 화제 여행	14.9.17 ~ 15.8.23	'화제'를 주제로 한 체험 전시
2015	아주 특별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말해나	15.10.2 ~ 16.8.23	'코부오-아동' 협력 활동 중심 체험 전시
2016	오늘은 모두의 생일	16.9.26 ~ 18.8.20	'단상과 영감' 주제의 체험 전시
2019	다 같이 놀자, 동네 세 바퀴	19.10.1 ~ 20.8.30	'어린이 놀이 환경과 놀 권리' 연구 소개
2021	두 개의 DMZ	21.9.26. ~ 22.9.30	경기도의 'DMZ' 주제의 실감형 전시



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어린이, 환경을 생각하는 어린이, 튼튼한 어린이, 세계 속의 어린이' 이렇게 네 가지의 대주제를 어린이상을 설정하고, 층별로 교과 중심으로 설계한 상설전시 체계가 있었습니다. 개관 당시 2층에 있던 경기도의 지역 환경을 담고 자연환경과 역사를 소개했던 '한강과 물 전시장', '건축 작업장', '미니 씨어터' 등의 전시실은 여러 가지 개편과정을 거쳐 현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4]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건립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은 경기도의 사회적인 특성이나 지역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 나아가 문화기관으로서 어린이박물관의 역할을 반영하되, 어린이의 관심과 흥미에 맞춘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공동체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통과 참여를 중시하고, 공동체로서 나와 사회, 그리고 세계를 인식하는 박물관을 구현하고자 하였고, 그 지역사회 안에서 어린이박물관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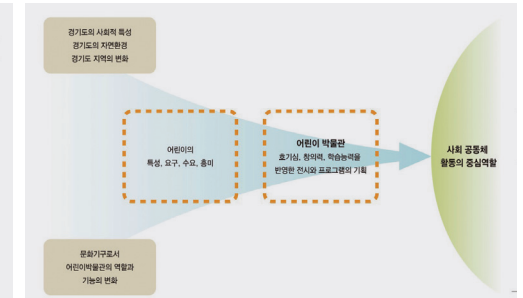
개관 설계할 때도 여러 가지 주요 특징들을 고려했습니다. 놀이를 통한 학습은 물론, 어린이박물관에서의 놀이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등을 고민했습니다. 예컨대 아이들이 전시를 통해 단순히 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손과 몸과 생각을 활용하면서 사고력을 함양하게 할 수 있을지 등의 질문을 안고 전시를 설계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박물관이라고 하여 꼭 어린이만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린이박물관이 지향해야 하는 네 가지 어린이상, 즉 호기심 많은 어린이, 튼튼한 어린이, 환경을 생각하는 어린이, 세계 속의 어린이라는 네 가지 대주제의 설정에 따라 설계했습니다. 나아가 우리 박물관은 박물관 조성부터 전시기획까지 어린이자문단과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중심이 되어 참여하는 어린이 참여적 설계를 한 좋은 선례로 많이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우리 박물관 개관 11년의 성과를 돌아본다면, 개관 때는

[4]

대주제	위치	주제	전시명
호기심 많은 어린이	1층 1,456㎡	놀이 자연 건강	자연놀이터 튼튼놀이터
환경을 생각하는 어린이	2층 958㎡	과학 사회	한강과 물 우리 몸은 어떻게?
튼튼한 어린이		역사	건축작업장
세계 속의 어린이	3층 966㎡	언어 예술 사회 문화	예코 아틀리에 동화 속 보물 찾기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미니씨어터

[5]



‘C7A(캠브리지 세븐 어소시에이츠)’라고 하는 미국의 전시 스튜디오와 함께 상설전시 공간의 개념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진적인 체험전시를 도입한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었지요. 덕분에 개관 43일 만에 10만 관람객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상설전시에서 여러 가지 개편과정을 거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고양하고 동두천에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 대한 전시콘텐츠 연구를 통해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을 설립하는 데 미약하나마 기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 상설전시 개편을 거쳐서 2020년도에는 공립박물관 평가에서 설립목적 달성도에 우수인증을 받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기도의 평화와 미래를 위한 실감형 체험 전시인 ‘두 개의 DMZ’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외부적으로는 유관 어린이시설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개관 13년 차에 접어들면서 상설전시 노후화가 굉장히 가속화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상설전시 개편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작년 7월부터 5개월간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린이를 둘러싼 사회, 환경, 문화 변화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어린이박물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자 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전시 개편의 필요성과 시급성,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저희의 큰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노력을 바탕으로 상설전시 개편계획과 시범콘텐츠, 시범전시에 대한 기획(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는 박물관의 현황분석을 위해 전시실별 특징들과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개선되어야 할 공간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관람객과 다양한 양상의 상호작용을 조사하면서 여러 전시실이 지닌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육정책에 관해서는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의 시기나 방법, 장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그 과정 안에서 박물관이 비형식적인 교육환경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미래 교육과 누리과정,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인 포용성과 창의성, 그리고 학습자 주도성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서도 ‘지식의 전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역량 발달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내용들은 저희 상설전시 개편계획에 있어서 지향하는 가치나 인간상, 그리고 영역구성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어린이상 대주제를 현재의 교육과정과 정책 속에서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혹은 강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호기심 많은 어린이’의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삶의 주체로서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부분들, 그리고 창의적인 가치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변혁적인 역량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었고, ‘환경을 생각하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최근의 기후위기나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공존의식과 지구공동체에 대한 실천적인 해결 같은 사항들이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어린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포함함으로써 행복에 대한 접근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속의 어린이’와 관련된 사항은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공동체의 역량이지요. 다름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인 어린이에 대한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흐름을 어린이박물관의 연구 동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핸즈온이라고 하는 국제어린이박물관 협회에서는 어린이박물관의 역할을 문화, 예술, 놀이를 통해 성인과 어린이가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장소로 제시하였습니다. 역할은 크게 여덟 가지 정도로 제시되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열린 문화적인 관문일 것. 두 번째는 우리 어린이박물관이 꾸준히 주장해왔던 것이기도 한데요. 상호작용적인 자기주도학습의 산실로서 놀이를 통해 배움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할 것. 세 번째는 어린이들이 모든 감각을 활용하여 전인적으로 발달할 수 있게 할 것. 네 번째는 어린이들이 공동창작자이자 변화의 주체로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모든 세대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이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역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디지털 기술을 수용해서 어린이가 현실과 가상 세계 사이를 탐색하게 하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지역사회의 변화하는 요구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중장기적인 7대 전략목표는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최초의 독립형 공립어린이박물관으로서 제시한 선도기관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경기도의 대표 어린이박물관으로서 정체성을 발현할 수 있게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들을 수립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근 디지털을 비

롯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개인맞춤형 학습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네 번째,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 특화된 전시에 대한 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실행할 것. 다섯 번째, 더 많은 가족과 사회공동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 여섯 번째 디지털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되, 그것이 어린이들의 창의성 개발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게끔 중점적으로 준비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물관 공간과 운영 전반에서 다양성·공정성·접근성·포용성을 실행할 것. 이렇게 일곱 가지 전략목표를 세웠습니다.^[6]

전시 개편은 이러한 전략목표를 실행해 가는 과정으로서 추진되어야 하기에, 첫 번째 목표로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정체성을 발현하고, 나아가 더 나은 공동체와 모두를 위한 실험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공동체의 지속적인 연결을 위해 디지털 활용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전시의 방향은 이런 개편 계획 아래에서 문화 다양성이나 시민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삼았고요. 포용적이고 협동적인 공동체를 전시로 표현하되, 그 각각의 공동체들이 디지털을 통해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술과 협력을 통해서 특정 교과나 영역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본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개방된 전시실에서 함께 경험할 수 있게, 그리고 작업실이나 어린이들의 작업공간을 통해서 깊이 있는 배움을 추구할 수 있는 것 등으로 방향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시로써 두 가지(안)를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의 집’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집을 주제로 더 나은 삶을 위한 공존과 상호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다섯 가지 존으로 구성하였습니다.^[7] 그리고 두 번째는 ‘나, 너, 우리’입니다. 다양한 나와 다양한 너를 마주하고 나아가 서로 함께할 수 있는 협력과 소통을 배우면서 시민으로서의 참여와 실천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8]

오늘 우리가 모인 콜로키움의 기획 의도는 미래 교육을 함께 궁리하고 내다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가올 10년을 상상하기 위해 어린이박물관의 과거와 현재를 짧게나마 되짚어보고 어린이박물관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박물관에서 일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는 “어린이박물관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이었어요.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린이에 많은 방점을 찍고 그 존재가치를 입증해 왔습니다.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에게 즐거운 배움의 공간이기도 하고, 어린이가 학교 이외에서 또래와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어린이와 보호자가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 가족이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런 형태로 여전히 교육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박물관이 충분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뒤따르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두 번째로 많이 받은 질문은 “어린이박물관이 박물관인가요?” 하는 것이었어요. 어린이박물관은 외형적으로는 놀이시설이나 체험시설, 여타 보육 시설과 유사해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교육적인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으므로 본질적으로는 그런 시설들과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 관람객의 시선에서는 그저 놀이시설 중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어린이박물관의 전시가 고유성을 획득하는 게 어린이박물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점일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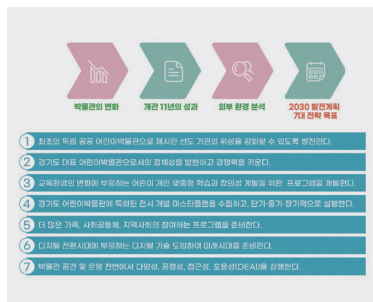
어린이박물관을 확장된 의미에서 본다면 ‘변화하는 박물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박물관의 정의 자체가 유물이었다면, 이제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으로 바뀌었고, 나아가 사람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이용자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이용자 중심 시선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고, 어린이박물관 또한 그 흐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박물관의 개관 당시 초대 추진단장이셨던 김정하 교수님에 따르면, 어린이박물관은 소장품을 수집하는 일반적인 박물관의 기능을 주요 업무로 하지는 않지만,

0
4
8

0
4
9

[6]



[7]



[8]



다른 박물관들과 똑같이 사회에 보탬에 되는 기능과 역할, 가치를 지니므로 똑같은 중요성이 있습니다. 김정하 교수님은 어린이박물관이 문화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미래의 어린이박물관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린이박물관은 앞서 소개한 여러 교육적인 실험들, 이를테면 융합교육이나 학제 간의 연구, 태도와 역량을 실현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어린이 커뮤니티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에 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겠지요. 어린이박물관은 배움의 장소입니다. 그 배움의 과정과 효과를 조금 더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과 전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어린이창작공간, 어린이작업실로서 넥슨재단이 만든 프로젝트리 등 여러 가지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런 공간들의 흐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도전과제를 설정하고, 그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배움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박물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박물관에서 놀이는 여전히 중요한 본질이지만,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을 확장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놀이 이상을 제공하는 박물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써 조금 전 시범 전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문화 다양성이나 시민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전시를 기획하는 것, 어린이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사회에 참여할 방법을 궁리하고 경험하게 하는 전시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 따로, ‘박물관’ 따로 방점을 두지 않습니다. 어린이박물관이 어린이박물관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 보스턴어린이박물관의 초대관장이었던 마이클 스폭Michael Spock은 어린이박물관이란 어린이에 관해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서 어린이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담아낼 수 있는 기획에 대해, 어린이들 자체에 관해 논의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어린이의 고유성과 개별성을 담아내기 위해 많은 시도를 했던 레지오 에밀리아의 접근방식과 어린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서 어린이의 문화생태계가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어린이박물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박물관을 발판 삼아 어린이 미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더욱 더 확산하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걷는 미래 교육

: 미래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임정희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반갑습니다. 어제 제게 여러 차례 얘기해주셨어요. 본문을 읽거나 경과 과정을 길게 늘여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미지 위주로 보여달라고요. '이미지만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을 다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걱정도 되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이미지를 추리고 또 추려보았습니다. 그랬는데도 되게 많이 가져오게 되었네요. 어쨌든 설명은 많이 생략하고 이미지로만 빠르게 진행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주제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다섯 개 그룹으로 나눠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미래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다른 선생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어린이가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해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서양에서도 17세기 이후였고요. 한국에서는 예전에 우리 그런 얘기 자주 들었었죠. 유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보면 어린이란 부족하고, 완성이 덜 된 존재였어요. 그래서 일곱 살이 되기 전에는 남녀 아이를 같이 앉게 하지도 못할 정도였잖아요. 즉 어린이를 완전하지 못한 인간으로 취급했어요. 특히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인간이 모두 원죄를 갖고 태어난 존재처럼 얘기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처럼 어린이라는 존재에 열렬한 관심을 갖는 건 정말 최근에 만들어진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 교육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각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도움이 필요한 부족한 존재가 아닌, 엄연한 주체로서 홀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존재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옛날에 청소년보호법이라고 있던 것 아시지요? 아니, 청소년진흥법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무슨 보호를 한단 말일까요? 그 아이들의 옆에서 같이 걸으면서 스스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엄격하게 잣대만 들이대면서 뭐는 하면 안 되고, 뭐는 해야 한다고 한 꼴이죠. 다시 말해 언제나 어른을 세계의 중심에 두었던 것입니다. 미래 교육에서는 이런 시각을 벗어나서 다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미래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지점은 모든 존재가 각자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권리와 그 토대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하자면 교육은 위에서 아래로 강요하여 수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첫 번째 사례^[1]에서는 아이

0
5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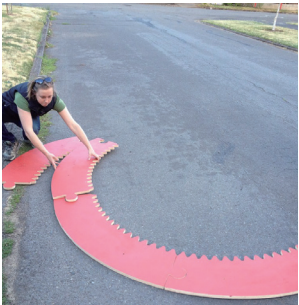
[1]



들이 놀이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신뢰를 쌓기도 하고, 자기를 느껴가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들은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협동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해야 그 게임을 잘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놀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할 것 같지만,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배울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게임의 규칙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게임에 참여하는 인원이 다섯 명일 때와 스무 명일 때 규칙이 같을 수 없겠죠. 아이들은 고정된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규칙을 스스로 바꾸면서 새롭게 운용해나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이를 통해 주체화되기, 스스로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나갑니다. 협동하는 능력과 타인을 신뢰하는 능력을 키우고, 자기가 지니고 있던 여러 관심을 직접 적용해보기도 합니다. 이젠 보도블록 위에서 놀이하는 모습^[2]이고요, 이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요즘 놀이터에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너무 놀랐습니다. 단순히 나무만 갖고 이렇게 균형 잡기를 할 수 있다니. 자기 신체를 아는 일은 사실 글만 읽어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해봐야지만 어디가 구부러지는지, 펼쳐지는지 등을 알 수 있죠.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몸보다는 정신이 더 고귀한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고, 이것이 교육의 기본 전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균형 잡기 놀이^[3]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단순히 한 판을 하면서 누가 이기나 지나를 따지는 게임이 아니에요. 이 놀이 안에서 사실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놀이의 메커니즘과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는 어린이가 느끼는 것들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젠 마찬가지로 눈을 감고 걸을 때 옆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는 놀이^[4]인데요.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쌓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 놀이라고 할 수 있지요. 소위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특수한 무엇이 아니라, 이런 놀이와 경험들을 층층이 쌓아 나갈 때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술적 능력' 길러주는 걸 특별히 겨냥하여 교육하는 일이 아이들의 창의성과 창조력을 고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능성을 경험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아이들이 스스로 나중에 그 경험들을 연결하고 확대해나갈 테니까요.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새로운 무언가를

0
5
4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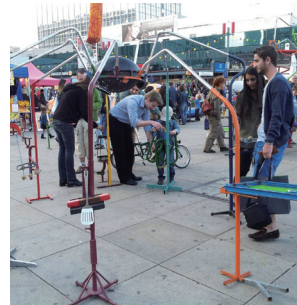


운용할 능력을 지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작품은 미술관에 놓일 수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여러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는 것. 또 그 가능성을 어려움 없이 찾아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지금 교육의 한 방향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많은 선생님이 어린이들에게 디지털 기술에 대한, 혹은 기술문화를 제대로 응용할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주셨죠. 하지만 제가 본 많은 곳에서는 최근 들어서 더욱 아날로그에 관한 관심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종이책이 없어질 거라는 이야기가 파다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종이책을 봅니다. 공원의 사람들도, 아이들도 종이책을 보죠. 게다가 그림책에 대한 기호는 정말 높아졌습니다. 저는 사실 사람들이 가상 사이버 세계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직접 만지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아날로그를 원하는 욕구도 마찬가지로 커질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의 상상력이라는 게 두 가지 면모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5]은 프랑스에서 놀이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진행한 팝업 프로젝트 같은 것인데요. 커다란 광장에 이런저런 놀이를 늘어놓고, 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직접 체험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놀이의 특징은 모두 옛날 물건들을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부서진 침대, 부엌에서 더 이상 쓰지 않는 여러 가지 요리기구 등이요. 굉장히 단순한 놀이예요. 진짜로 그냥 '놀이'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엄청나게 재미있어하죠. 여기 보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걸 함께 하고 있는데요, 당기고 밀어서 맞추는 되게 단순한 놀이예요. 하지만 사실 이 물건들은 역사를 담고 있는 것들이라 아빠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거 가지고 놀았지. 우리 옛날에 구슬치기라는 걸 했거든. 그리고 딱지치기도 했지. 딱지를 더 많이 가지고 싶었지." 이런 식으로 세대 간의 대화도 이루어지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아가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종이 없이 사는 아프리카 애들은 지금 어떻게? 혹은 신발 없이 사는 애들은 어떻게 축구를 할까? 축구공이 없는 애들은 또 어떻게 하고? 즉 놀이를 통하면 단순히 사실을 아는 데서 나아가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곳이 아닌 다른 시간대와 공간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

0
5
5

[5]



을 시간이든, 지나간 시간이든요. 과거의 공간이나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공간을 상상해볼 수 있겠죠. 이런 꼭 필요한 능력을 놀이를 통해서 길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자세히 관심을 기울이고, 실제로 체험하면 생각지도 못한 많은 가능성이 열리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하려면 누군가 '이거 한 번 이렇게 해봐. 이거 되게 재미있을걸?' 하고 아이들에게 독려해주는 존재가 필요하겠지요. 바로 이 지점이 미술관이 됐든 박물관이 됐든 소위 전문가들이 개입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직접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전문가들의 일, 그리고 어른들의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꼭 학교에서만 배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반드시 내 부모를 통해서 가족의 역사나 가풍을 배우지도 않는 것 같고요. 많은 사람이 이미 학교 밖에서도 배울 수 있고, 또 사실 비공식적인 여러 루트를 통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다들 인식하고는 있었으나 드러내진 않았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녀본 많은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비공식적인 배움의 루트에 대해, 즉 거리나 광장에서 만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6] 그것이 제가 목격한, 미래 교육의 느낌이었습니니다. 여기 봐주시면, 거리나 광장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이 오가죠. 때로 충돌도 일어나고 조금은 더럽거나 불결함도 존재하는 것 같고, 혹은 야릇해 보이는 많은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불안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요새는 모든 걸 너무나 안전하게만 만들어놓으니까, 아이들이 손 더러워지는 게 싫어서 흠도 못 만지잖아요. 요새 아이들은 가위질도 못 하는 거 아시나요? 스마트폰에 너무 익숙해져서 가위질을 제대로 하는 애들이 없어요. 노동에 익숙하지 않고, 자기 몸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우연한 만남이나,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어떤 불온함이나 이상함, 생경함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거리와 광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열린 공간인 것이지요. 학교처럼 시스템을 갖추고 정보의 전달과 소통을 계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

연을 받아들이기 기회를 확장하는 일이 미래 교육에서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질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독일의 그래피티입니다^[7]. 독일의 마우어파크라고 하는 곳이에요. 독일은 프랑스나 영국과 비교했을 때 전통적인 문화강국이 아니었죠. 그러나 오히려 1960년대 이후 들어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일상문화나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독일에 가보면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느낄 수 있는, 또는 이탈리아에서 느낄 수 있는 전통의 무거운 분위기보다는 '뭐지, 이거?' 싶은, 흔들리는 생동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남미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어쨌든 경계를 넘은 사람들이죠. 국경의 경계를 넘은 유랑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노마드들이 많이 모이면서 독일이 그나마 이전에 갖고 있었던 답답함을 조금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이러한 그래피티입니다. 독일에서는 그래피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허용합니다. 심지어 여러 주거지에도 그래피티를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게 느껴지기도 해서 어떻게 저렇게 깨끗한 집에도 저런 그래피티를 해놓은 거지? 싶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세상 어느 곳에서나 자기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공식적으로는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언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베를린은 그런 것들을 억압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둔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1년에 몇 번씩은 공원 한쪽에 이렇게 대규모로 모이죠. 여기 참여하는 대부분은 청소년이에요.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의 학생들입니다. 그보다 더 어린 어린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저렇게 그래피티를 하고, 한쪽에서는 노래를 하고, 한쪽에서는 플리마켓이 열리는 식이지요. 이런 열린 공간의 특징은 단일하게 기획하고 효과를 정확히 산정하지 않았다는 게, 분명한 타격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산만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공간만이 선사하는 특별함과 만남의 방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자유로운 쾌감이 있고, 사람과의 어울림이 있지요.

0
5
6

[6]



0
5
7

[7]



앞서 얘기했던 거리와 광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동네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곤 했었죠. “마을 전체가 어린이를 키운다.” 그런데 사실 이제는 동네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역공동체가 깨진 게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을 많이 다녀보면, 미래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자산으로 꼽는 것이 바로 지역 커뮤니티가 주는 안정감과 지속성, 그리고 협업하는 방식들입니다. 그 차이를 서로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규모를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서 깨닫는다는 데는 하등의 이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나라의 교육에서든 지역 커뮤니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매주 혹은 2주에 한 번씩 벼룩시장이 열려요. 벼룩시장에는 이상한 불소를 한다든가, 혹은 연극을 한다든가 노래를 한다든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도 자주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마을사도 옵니다.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나 이번 주에 광장에 갈 거야’라고 생각하게 되겠지요. 해외에서는 끊임없이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여러 가지 교육의 현장들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공공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공공성이야말로 사람들을 서로 섞이게 하고 위계를 없애고, 독점적인 권위를 흐트러트리는 힘입니다. 아시다시피 프랑스 68혁명이 있고 난 뒤에 1970년대에는 집세가 너무 높아졌지요. 돈 없는 학생들이나 이주민들이 집을 점거한 뒤에 아예 축제를 벌였지요. 그래서 지금 함부로 내쫓지 못합니다. 집세를 막 올리지도 못하고요. 그거 할 때의 모습이고요. 지금은 당연시되는 장소가 된 이곳은 ‘무지개공장’^[8]이라는 베를린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 보시면 정말 많은 어린이가 있죠. 어린이들은 항상 어른들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이모가 됐든 옆집 아주머니가 됐든 아저씨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함께 더불어 큼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린이에게만 환경교육을 열심히 받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아이만 학교에서 배우고, 엄마는 그런 정보를 전혀 모르면 무슨 소용인가요. 세대 간의 기획 없이, 단일한 가치를 함께 배워야 하죠. 무지개공장은 이 지역

의 슬럼가였던 곳을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청소하고 가꾸면서 이렇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저는 매년 이곳에 갈 때마다 여기서 머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기 안에는 자전거 수리점도 있고요. 도자기 하는 작업실도 있고요. 물론 당연히 놀이터도 있어요. 여기에 사진은 8@안 넣었지만, 지하에는 공동영화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굴뚝을 이용한 화덕 레스토랑도 있고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곳을 지켜요. 그다음에 이곳은 이제 상당히 유명해진 시민 참여형 도시 공동체 정원인 프린체스이넨가르텐^[9]이라는 곳입니다. 도시 정원과 도시 농업을 싹틔우게 한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넘겨보시면 왼쪽이 원래 이랬던 곳입니다. 여긴 동독과 서독을 가르는 장벽 사이에 자리한 곳이었는데요. 원래는 쓰레기가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의 거의 모든 사람이,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모여서 쓰레기를 다 치우고,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10] 주민들이 합심해서 정원으로 가꾼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할 수 없이 허가를 내주게 되었지요. 단, 조건도 있어요. 마음대로 땅의 포장을 뜯어내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가꾸기까지 한계도 있었지만, 생태 정원 혹은 커뮤니티 정원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기 사람들은 정말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했고, 지금은 이러한 커뮤니티 정원이 모든 교육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농사 안 짓는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농사 안 짓는 아파트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에 보여드린 지도에서 표시된 부분이 다 베를린 안에 있는 커뮤니티 정원입니다. 수백 개의 정원이 있고요. 내 정원이라고 영역을 구획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함께합니다. ‘채마밭을 위한 땅을’ 혹은 ‘놀이터를 위한 땅을’ 등으로요. 그에 따라 많은 원칙도 생깁니다. 쓰레기는 처리해야 할 지 등이요. 커뮤니티 정원을 가꾸다 보면 곤충들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는지도 관찰하게 되지요. 인간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 생명체에도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식물, 동물, 광물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생태적이어야 한다, 환경적이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 순환 사이클을 어떻게 다 파악하겠어요? 그런데 이 작은 정원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이것이 돌아가는지를 협력적으로 공부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 이 사람들이 여기서 다 같이 이렇게 식물을 가꾸는데요. 만약에 감자를 심는다고 하면 감자 종류를 있는 대로 다 모읍니다. 그 동네에 사

0
5
8

0
5
9

[8]



[9]



[10]



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할머니가 가져오고, 남미 사람도 가져오고, 저도 여러 가지 갖다 주기도 했어요. 부추나 깻잎 씨앗 같은 것도요. 감자를 그렇게 여러 사람에게서 모아 보니까 모두 24종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해서 종 다양성에 대한 것들을 익힐 수 있죠. 감자를 다 심고 자라면, 또 다 같이 감자를 캐서 음식을 해 먹습니다. 다양성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환경 전체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요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커다란 노력이 필요해요. 이런 환경을 조직하고 실천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겠지요. 그렇지만 이를 해낸다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보시면 여기가 예전에는 공항이었습니다.^[11] 공항을 철거하고 이 자리에 원래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민투표를 통해서 아파트가 아닌 시민 휴식터가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주민투표에서 시민들이 이긴 거예요. 그렇게 압도적인 승리는 아니었지만, 75%의 찬동을 끌어냈어요. 당연히 시민 휴식터이므로 사람들은 거기다가 각자 정원을 만들기도 하고,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는 공간도 꾸렸고요. 개 데리고 노는 데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연도 날리고 산책도 하고 달리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공항이 있던 자리를 시민들의 것으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강가에 부자들의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마치 슬로건처럼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외의 미래 교육에 대한 인식에는 누구나 공정하게, 누구나 접근성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과 특정한 일부가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 바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개만 딱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청소년 글쓰기센터^[12]인데요.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사회적인 협력관계나 커뮤니티성의 강조, 다양성의 가치들을 생활 속에서 익히게 하는 것에 대해 주로 얘기 드렸었는데요. 또 하나의 새로운 흐름은 셰익스피어가 있는 영국과 프랑스 같은 곳에서 시작되어서 지금은 전 세계에 많이 퍼져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글쓰기센터입니다. 이 글쓰기센터는 꼭 기관에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

다. 첫 시작은 2002년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였습니다. 826번지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는 '826National'이라는 단체가 생겼지요. 처음에는 단순히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를테면 방과 후 글쓰기 수업, 혹은 글쓰기 모임 이런 것을 하려고 임대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곳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뭐냐면 반드시 상점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공간을 되게 싸게 얻었는데, 떠나기가 아쉬우니까 '그러면 상점을 하지, 뭐'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해적상점'^[13]입니다. 오히려 무슨 센터다, 혹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라고 하면 권위와 벽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상점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누구든 쉽게 호기심을 가질 수 있죠. 구매하는 거니까, 구매를 안 한다고 해도 일단 마음대로 볼 수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해적상점을 열고 난 뒤에는 의외로 잘 만날 수 없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글쓰기센터는 상점이기도 하면서, 옆 공간은 작업공간으로 씁니다. 작업공간에서는 출판물 전시를 하기도 하고,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여러 글쓰기 수업도 하고, 토론도 나누지요. 상점과 작업실이 같이 있는 양상입니다.

제가 수많은 예를 보여드렸는데요. 다는 못 보여드렸지만 이런 글쓰기센터는 지금 전 세계 방방곡곡에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영국 등에 많이 생겨났어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상상력을 길러라, 상상하라" 말하지만, 사실 그걸 억누르고 금지하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해적상점에서는 무엇을 팔까요?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이 상품의 형태로 바꾼 것들을 팝니다. 이 상점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야기 공장'에는 '꿈 연구실'이 있어요. 그리고 '화성 대사관'도 있고요. 이름도 되게 웃기게 지었죠. 제일 처음에 생긴 해적상점에는 해적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수염, 해적들이 갖고 있을 잠망경 같은 걸 판매했어요. 옛날 물건들을 다 모아서요. 해적상점의 공간도 입체적으로 디자인했죠. 바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면, 안에서 바다가 보이게 한다면가 하는 식으로요. 아이들이 이 공간이 비현실이라고 느끼지 않게 엄청 세심하게 설계했어요. 실제로 물성을 느끼고, 계단이나 통로를 들어가거나, 구성물을 만질 수 있게

0
6
0

0
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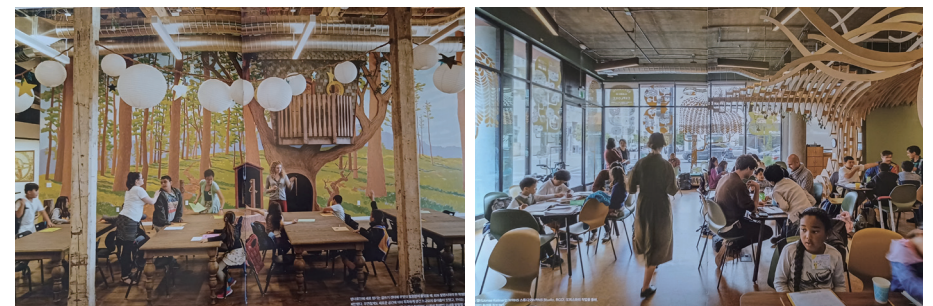
[11]



[12]



[13]



함으로써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던 것들을 구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상품의 형태로 된 것들을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 여러 종류의 캔에 담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팔아요. 그래서 무슨 조마조마할 때 먹는 약품, 무사태평을 위한 약품 등을 음식처럼 만들어서 팔아요. 다양한 기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정말로 먹을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임한답니다. 독특한 점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특히 여러 기업에서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해적상점은 대부분 80~90%가 민간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끼고 할 경우엔 제약이 너무 많대요. 기업들의 지원과 많은 전문가의 협조 덕분에 재정제에 대한 걱정 없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 기업체와 전문가의 도움으로 분위기가 바글바글 끓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 아이들은 정말 희한한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지요. 그 아이들은 해적만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무언가의 눈물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한다던가, 마신다던가, 혹은 선물한다던가 하는 식이죠. 사실 우리는 상상력과 창의력의 중요성을 늘 주장하지만, 그걸 길러내는 방향이 항상 정형화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해적상점은 상품의 형태를 통해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매년 이곳에 가서 그런지 이런 것들이 무섭지도 않고 더럽다고 느껴지지도 않는데요. 처음에 '와, 상상력과 소비를 완전히 직결시켰네?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싶었죠. 그런데 곰곰 생각을 해보니 제가 자본주의사회에 태어나 살면서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구매하고 싶은지, 또 뭘 먹어보고 싶은지, 뭘 입어보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제대로 안 해 봤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건 다 어린이들을 위한 겁니다. 오늘 제가 두꺼운 문구 책을 가져왔는데요. 몇 달 전에 번역이 돼서 출간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살펴보세요. 이 책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정말 씹박한 아이디어 상품에 기대어서 만들어진 것들도 있고, 또는 전통적인 부분을 남겨두면서도 새로운 영역을 구축한 것도 있고요. 다시 말하자면 문학이면 문학에 대한 더 많은 새로운 글쓰기, 집중적 글쓰기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상점 전체는 글쓰기와 상점, 말하자면 상점과 문화예술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상점을 차지한다면 4분의 3은 작업

장과 연구실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저들이 어린이들을 작가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상당히 공을 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어린이를 상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변화하지 못한 채, 과거의 누적적인 시간에만 매여서 살게 될 겁니다. '내가 한 30살이 되면 이 정도의 사회적 성공을 거둘 거야.' 이렇게만 계속해서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지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도요. 우리는 현재의 중요성보다는 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나중을 위해 지금을 소모하게 되는데, 어린이를 위한 교육에서는 반드시 어린이를 전일적 인간으로서 바라봐야 하고, 그것을 위한 시스템을 위해 오랜 시간 정성을 들이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이 만든 어낸 것들을 인정해야 하고요. 보여드렸던 상점들에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책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백 권은 될 겁니다. 모두 굉장히 아름다워요. 많은 디자이너와 작가와 사람들이 같이 도와서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죠.

한국에도 이러한 비슷한 콘셉트의 장소가 몇 군데 생겼습니다.^[14] 아까 현대어린이책미술관에서 하시는 전시와 활동 같은 것들 너무 부럽고 좋았는데, '입장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런 것들을 어떻게 무료로, 많은 사람한테 개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도서관문화재단씨앗이라는 곳에서 몇몇 지역에 글쓰기와 창의력 증진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 등을 다양한 협업을 통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서울을 가시거나 세종시를 가시거나 전주시를 가시거나 하면 방문해 보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글짓기센터들은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제일 큰 게 80평이었고요. 작은 것은 30~40평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이러한 센터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고,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글쓰기를 할 때도 문법이 정확한가 하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을 쓰게 하고, 이미지처럼 추상적인 것들도 표현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즐



[14]



거움과 기쁨을 찾게 해주어야죠. 이런 센터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경기북부박물관에서도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이런 센터를 구축하
시면 좋겠습니다.

포럼 2

미래를 위한 현재의 공유:
새로운 교육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일시: 2023년 11월 01일(수) 14:00
장소: 파주시 회동길 125-15, 안그라픽스 3층





기조강연

들깨우다: 스스로 익힘, 저절로 배움



김종길 |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관장

반갑습니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관장 김종길입니다.

작년 4월에 박물관에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어린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박물관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박물관을 찾는 주요 관람객은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인걸 보면 주요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 나이 이하의 아이들이군요. 약 100년 전,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공식화하면서 '어린이해방선언'과 같은 선언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법적인 나이는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까지인 만 13세 미만으로 언급되지만, UN의 아동권리협약이나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만 18세까지로 보기도 합니다. 사실, '어린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매우 어린 아이들로만 생각되지만, 법적으로는 19세 혹은 20세까지도 어린이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어린이박물관의 교육 철학을 초등학교 저학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하여 청소년과 청년이 되는 과정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 교육 철학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만 18세가 되는 시점부터 대학 입학이 다가오는데, 이런 아이들이 현재의 대학교 유형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파티가 만들어진 교육 방식이 어린이박물관이 채택해야 할 교육 철학의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상수 날개와 연락해서 파티와 MOU를 체결하고 두 번의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만남들을 기반으로 내년에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정책과 과제, 비전, 미션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외전(外典)으로 전하는 도마복음을 읽다 보면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거든 너희는 모두 빛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해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우리모두는 빛으로부터 온 존재 의미이죠. 그런데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뒤, 얼마 지나면 그러한 빛은 다 사라지고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물에 갇힌 채 성장하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그러한 성장의 과정에서 자기가 빛으로부터 온 존재임을 잊었기 때문에 이를 향해 질문하고 평생을 구도(求道)하며 수행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가 빛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세미나의 주제로 잡은 '들깨우다'라는 말은 뒤흔들어 깨운다는 의미입니다. '빛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뒤흔들어 깨워서 그 상을 일으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1] 이 그림은 그림책 작가 닝겔이 이러한 생각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모두 빛으로부터 왔고, 빛으로 살아야 하고, 빛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이지만, 이러한 들깨움을 누가 가르치느냐는 거죠. 결과적으로 제목에서 그냥 결론을 내려놔

습니다. 이건 누가 가르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익히고 저절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닐까? 이러한 결론에서 한번 이야기를 끌어보고 싶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어린이박물관 관장입니다.^[2] 7년 차 된 박물관에 초대 관장으로 왔습니다. 7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박물관은 어린이와 관련된 교육철학이나 비전하우스 체계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린이'와 '박물관'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는 생각해 보면 가장 적절치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박물관의 '박물관'은 일종의 박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쓸모없이 오래돼 버린 물건에 붙이는 말이 '박물관'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그런 쓸모없는 박제된 상태의 물건에 비유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난센스이죠. 어쩔 수 없이 박물관이라는 말과 미술관이라는 말 중에서 박물관을 선택해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어린이야말로 박물관과 가장 충돌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미래라는 말을 넣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석(多夕) 류영모라는 철학자는 부처를 뜻하는 말 중에 여래라는 말을 '있다시 온'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순수하게 있던 한 빛의 존재가 어딘가에 있다가 다시 왔다'라는 의미로 쓰셨어요.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미래가 아닐까. 그래서 어린이와 박물관 사이에 미래라는 씨앗을 꼭 집어넣어서 좀 공공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가르침이 일어나는 배곧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시경 선생님께서는 학교를 배곧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쓴 말은 시옷이 아니고 디귿인데, 이게 '디디고 일어선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배움터에서 디디고 일어나는 일종의 배곧이라는 학교를 만들어야겠다. 즉, 만 18세 그리고 그 이후를 성장할 수 있는 미래학교, 미래배곧을 만드는 것이 어린이박물관이 해야 할 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003년에 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으로 처음 입사했을 당시의 기획물 중에 '이것이 미래 교육이다'라는 10편의 DVD가 있습니다. 이 기획물은 제가 직접 가진 않았고, 사업을 기획하여 전문 영상팀을 각 나라에 보내서 미래학교의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

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촬영하고 편집한 자료를 글로 풀어 잡지에 기고하고 알리는 일을 1년 내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3] 발도르프 교육으로 잘 알려진 슈타인 학교, 러시아의 톨스토이 학교, 일본의 키노쿠니 학교, 태국의 무반덱, 일본의 자유학원, 덴마크의 그룬트비 교육, 독일 몬테소리 학교, 프랑스 프레네, 미국의 알바니 프리스쿨, 메트스쿨 이렇게 10개 학교에 대한 취재 영상들을 쭉 봤습니다. 대체로 이곳에서 벌어지는 교육은 일종의 교육 실험실과 같은 풍경이었어요. 우리가 초중고에서 배우는 국어, 수학, 역사 같은 분과 교과서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선생님들은 하나의 주제에 여러 교과목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저도 공교육 환경에서 자랐지만, 우리는 선생님이 다녀가면서 역사, 국어, 수학 같은 교과목 수업을 따로 하기 때문에 뇌 구조가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연결망에 한 가지 주제를 집어넣으면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톨스토이 학교에서도 그러한 교육실험이 일어나고 있고, 발도르프 교육이야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사람의 뉴런이 만들어 내는 일종의 우주적인 연결망들을 하나의 주제로 꺾어나가는 방식의 교육이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교육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했지만 대체로 한국에서는 수업에 형식적인 프로그램 형태로 도입해서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 2010년에 지금은 송파문화재단의 대표로 있는 강원재(강구야) 선생이 기획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대안학교 10년을 되돌아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전히 한국에 철학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철학이 풍부한 토양이 되고, 그로부터 구근(球根)을 캐야 하는데, 고구마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너무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을 키워내는 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모르는 거죠. 흙이야말로 교육의 철학이자 토양이고, 모든 것의 뿌리일 수 있는데 말이죠.

이 기획이 끝나고 나서 톨스토이 학교 선생님들을 한국으로 모셔서 안성의 너리굴 문화마을에서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주로 하시는 얘기는 톨스토이의 프로그램과 예술론에 관한 철학이었습니다. 톨스토이 예술론이야말로 풍부한 토양이

0
7
2

0
7
3

[1]



[2]

• 저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관장입니다.

어린이+박물관

키즈카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미래+박물관**을 공공하며 새 가르침이 일어나는 배곧/배곳 만들기는 어떻게 가능할지 생각합니다. 20년 전 저는 <이것이 미래교육이다> 기획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3]



01. 교육은 예술이다 - 영국 슈타이너학교
02. 교육 실험실 - 러시아 톨스토이학교
03. 교육은 제형이다 - 일본 키노쿠니학교
04. 사람과 지구의 교육공동체 - 태국 무반덱학교
05. 오래된 미래교육 - 일본 자유학원
06. 대화하는 교육공동체 - 덴마크 그룬트비 교육
07. 함께하는 자유 - 독일 몬테소리학교
08. 공교육 개혁의 희망 - 프랑스 프레네학교
09. 아이들의 자유, 지역사회학교의 꿈 - 미국 알바니 프리스쿨
10. 스스로 공부하고 세상과 소통하라 - 미국 메트스쿨

고 거기서 어떠한 결실을 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4] 발도르프 교육에서도 핵심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프로그램을 계획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계획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그것을 고민하면서 밤늦게까지 혼자 교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침이 오면 아이들과 교문 밖에서부터 손을 맞잡고 포옹하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무언가를 주입받고 가는 게 아니라 올 때부터 선생님과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따리를 틀고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수업들이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발도르프의 어린이 과정이 청년과 어른, 심지어 노년층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교육의 방법론이 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드는 생각은 '이 아이들은 커서 어떠한 어른이 됐을까?'하는 질문이었습니다.[5] 발도르프 학교는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로 나가는 경우 다시 선생님이 돌아가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요. 공무원과 같은 직업을 선택한 친구들도 일부 있지만, 이들은 1년, 2년 만에 대부분 사표를 쓰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제도적으로 짜여 있는 시간적 틀거리 안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적응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거나 예술가나 프리랜서가 되거나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분이 저에겐 또 하나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 밖 사회로 나갈 수 없는가?' 왜냐하면 소용돌이를 일으킨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로 사회를 뒤흔드는 존재가 돼야 하는데 사회로 진입하기 너무 어려운 지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 잘 살고 있을까?, 아이들이 잘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발도르프에서 이야기하는 성장 발달에 맞춘 전인교육은 과연 청년이 돼서도 전인적 삶을 살게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 박물관으로 돌렸을 때 '어린이', '미래', '박물관'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교육철학을 세웠을 때, 과연 우리 박물관은 전인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세우고 계획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한꺼번에 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진다면 이 아이들

이 손을 맞잡고 가운데에 있는 덩치가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겠죠.[6] 그리고 어떤 바람과 세파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 밀동치 안에서 뿌리를 키우며 세상을 향해 넓은 가치를 피어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그들끼리의 공동체로 다시 수렴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이러한 두꺼운 나무를 키우면서 다른 나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자료를 준비하다가 몇 가지 메모를 이렇게 나열식으로 적어보았습니다.[7] 사실 제 머릿속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방사형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청년이 되어 삶을 사는데 이 힘든 현실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또 돈은 어떻게 해결할까? 삶과 나를 연계해 보면 그들이 어느 지점에서 이러한 질문들이 궁금할 것인데, 나는 어디에서 있지? 어디로 가고 있을까? 나는 누구지? 이러한 질문들을 어떻게 풀어낼까? 항상 모르거리 좀 안에서 질문했던 이들이 모르거리즘의 소용돌이 안에서 어떻게 알고리즘이라는 자기 삶의 그물을 짜고 있을까? 과연 그들이 철학, 문학, 예술학과 같은 다양한 인문학을 배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데 과연 그 짓거리를 잘 펼치고 있을까? 그리고 자기 세계는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 잘 깨달았을까? 잘 닦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자연의 한 층으로서 사람은 잘 사르고 있을까?

다석 류영모 선생은 사람이라는 말을 '사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부에 영적인 에너지를 계속 사르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죠. 잘 사르고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 들사람은 잘 살아있나? 불사람의 시기는 이런 겁니다. 칼 야스퍼스(Karl Jaspers)는 2,500년 전을 제1 차축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조로아스터, 플라톤,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노자 등 이러한 모든 철학의 시대가 2,500년을 기준으로 해서 ±300년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인류사의 철학적 기둥이 그 시기에 다 만들어진 거죠. 이걸 제1 차축의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은 2,500년이 지난 우리의 세계는 여전히 당시에 세운 인류의 슬기슬기 철학 세계로부터 한 발자국도 건너뛰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라는 여신시대가 끝나고 청동기시대와 쇠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남성의 힘과 무기가

0
7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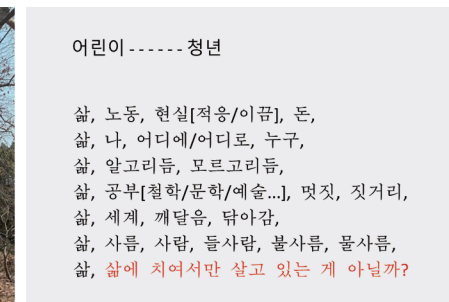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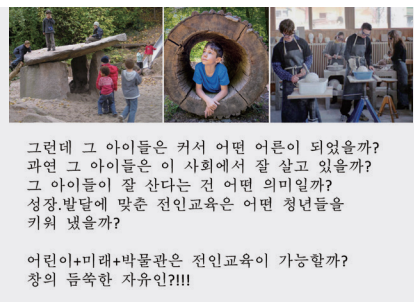
0
7
5

[4]

[5]

[6]

[7]



만나서 일으킨 게 무엇일까요? 바로 전쟁과 싸움, 살육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처럼 전쟁과 살육의 시대가 여전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불의 시대를 다시 물의 시대로 되돌릴 수는 없을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 배곧, 미래 배곧을 생각하면서 떠올린 키워드가 씨, 밭, 알입니다.[8] 씨앗이라고 하지만 씨 안에 물이 만나야만 씨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온전한 씨는 마른 상태로 1,000년을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물을 만나야만 앗을 틔우고 알이라는 열매로 성장합니다. 다석 류영모 선생은 함석헌 선생의 스승이신데요. 이분에게는 세 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 바로 물음, 불음, 풀. 즉, 묻고 불리고 푼다는 거죠. 물음이라는 질문을 꼭 문 채로 불리는 거죠. 생각을 길게 불리다 보면 어느 순간 탁! 하고 풀린다는 겁니다. 씨가 물 안에서 탁! 터지면서 앗을 틔우고 생명이 드디어 숨을 쉬는 거죠. 또 여기서는 '애'라는 글자는 원래 꼭지이음(ㅇ)을 썼는데, 이는 씨앗에 해당하는 글자이고, 싹이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텅 빈 우주에 싹이 탁! 솟은 글자가 여린 기옥이예요. 이게 참나라고 보면 깨고 깨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밀고 그게 믿어지면 밀을 터야 합니다. 그럼 다시 밀고, 또 믿어지면, 또 밀을 터면서 계속 깊어지게 하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제가 생각한 것이 배움, 틔움, 익힘, 쓰임, 이름과 같은 키워드가 우리 어린이 미래의 배곧을 위한 키워드가 되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움을 만드는 것, 우리 몸 안에 움을 만드는 것이 곧 배움입니다. 우리말 배움은 몸에 배서 움이라고 하는 싹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순진하게 얘기하면 알맞이가 됩니다. '알다'라는 말에서 '알'이 중요한 거거든요. '알다'라는 뜻이 '알' 하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을 내 몸에 맞이하는 것이 배움이고, 병을 앓듯이 알음을 공공 앓아야 되워지고, 그 앓음앓이를 계속 앓아가고 익혀지다 보면 벼가 영글 듯이 영그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밥을 먹듯이 몸 자체를 쓰게 할 수가 있고 열매를 맺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오랫동안 동아시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이었습니다.[9] 참 씨알

을 깨고 캐서 공부를 짓고 일으키도록 가장 먼저 가르치는 공부였습니다. 제일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서당에 가면 세 살부터 천지현황 우주홍황을 가장 먼저 입에 붙게 합니다.[10] 우리에게 너무 낮은 말이지만 서당에서는 다섯 살 형이 세 살 동생을 데리고 가 무릎 꿇고 앉아 가장 먼저 배우는 게 하날턴 따디 가물현 누를항 집우 집두 너블홍 거출항을 배웁니다. '하늘'이라 하지 않고 '하날 땅, 가물고 누르다, 집은 너블고 거칠다' 이 말부터 배웁니다. 동아시아에서는 학교에 들어가 영희, 철수, 개, 강아지 이런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 우주부터 배웁니다. 천자문은 1,000개의 글자를 배우는 게 아니라 우주를 머리에 먼저 집어넣고 우리가 우주 어디로부터 왔는지 천지현황 우주홍황하며 사사조 운율의 시를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의 이치를 다섯 살까지 깨우치게 하는데, 그래야만 모든 인간적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학이 아니라 이름부터 배우죠. 그러다 보니 어른이 되어서도 천지현황을 깨우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버립니다. 천자문을 배우면서 아이들은 놀이를 배웁니다.[11] 그 중에 여러분이 드라마에서 본 오징어 게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 3,000년 길게는 5,000년 된 놀이입니다. 아마 저나 날개처럼 연세가 조금 있는 분을 제외 직접 해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는 원, 방, 각이라고 합니다. 원은 하늘, 방은 땅, 각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호는 동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의 문화적 원형의 기본입니다.

제가 동아시아 철학을 공부하면서 '오징어 게임 자체에 비밀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단순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팀과 진 팀을 나누어 한 팀이 위에 있는 동그라미 안에서, 다른 한 팀은 세모와 네모 구역 안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모두 두 발을 땅에 딛고 게임을 시작하지만, 하늘을 의미하는 원에서 나올 때는 반드시 깨금발을 하고 뛰어야 합니다. 즉, 완전한 상태에서 불완전한 상태로 바뀌는 거죠.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가 세모와 네모 사이에 다리가 있는데 저곳을 건너뛰기를 하면 두 발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리를 건너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밀고 잡아당겨야 합니다. 만약 다리를 건너 완전한 상태가 되면 아래에 있는 동

[8]



어린이 배곧을 공경하다
씨 / 밭 / 알

물 - 불 - 풀
애 - 깨 - 깨
밀 - 민 - 밀

배움 : 알맞이
틔움 : 알음알이
익힘 : 알음알이
쓰임 : 영글기
이름 : 열매기

[9]

- 동아시아는 아이에게
- 참 씨알 깨고 캐는 공부를
- 짓고 일으키도록
- 가르쳤습니다.
- 그래서 가장 먼저 깨우치는 것이
- 천지우주였습니다.

[10]



[11]



그라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밖으로 막아 밀어냅니다. 밖으로 가면 죽는 거구요. 그런데 누군가 삼각형 꼭지에 있는 원에 들어가 발로 딱! 터치하면 이 게임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단한 원리가 알고 보니 동아시아에 오랫동안 있었던 내단수련법(內丹修鍊法)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엄마 뱃속에서 나와 얼마 뒤 빛을 잃어버려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잊고 살게 됩니다. 즉,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땅과 사람의 위치를 깨닫는 과정, 즉 건너뛰기를 하면 본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이 안을 파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를 하늘과 땅, 사람의 위치를 온전히 꿰뚫는다고 합니다. 임금 왕(王)이라는 한자는 권력을 진 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 사람의 위치를 꿰뚫은 자라고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써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동아시아에서 부르는 현자 진인, 즉 참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가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놀이에 있고, 우리는 이 놀이를 세 살, 다섯 살 때 천자문과 함께 배우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과정이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서구에서는 약 2,500년이 지나 일원론적 세계관이 플라톤에 의해 형이상학·형이하학이라는 두 개의 세계로 쪼개진 뒤에 슈타이너에 와서 비로소 에테르 영성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12] 이것이 바로 신지학, 인지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는 예술과 천문학, 문학 등 모든 학문을 하나의 그물망으로 짜는 실험을 괴테아눔(Goetheanum)에서 시작합니다.^[13] 파티의 건물을 세우듯이 슈타이너도 괴테아눔을 세우고 이곳에서 처음 발도르프 교육을 시도하게 됩니다. 최근에 와서 슈타이너의 많은 사상들이 한국에서 번역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번역된 것이 슈타이너 본인이 쓴 자서전이고, 두 번째로 나온 것이 『철학, 우주론, 종교』입니다. 얇은 책에 발도르프 교육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드는데에 대한 일종의 철학적 지침과 핵심적인 사상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7~14세를 위한 교육 예술』을 통해 나이별로 분과적인 교육학을 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원형이 괴테아눔에 있습니다.

그림^[14]을 보면 물질체가 하나는 안에 있고 다른 하나는 밖에 있습니다. '나'라는 것이 하나는 겉에 있고 다른 하나는 밖에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파배기처럼 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물질체 안에 에테르체라는 영성체가 있다고 보았고, 이를 둘러싼 감정체가 있다는 슈타이너의 개념은 동아시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어디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물질로서의 나란 왼쪽에 있는 것이고, 참나라는 존재는 오른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의 성장이 영적 성장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나이를 먹어가며 아이의 육체적 성장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적 성장을 이끄는 교육에 모든 것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맨 오른쪽 그림^[15]은 인도의 요가처럼 일종의 식물적 몸의 상태에서 어떻게 영성체를 깨우는가에 대한 몸의 수행에 관한 그림입니다. 가운데 그림은 동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발달한 동의학의 경락입니다. 왼쪽 그림은 신지학이 더 발전해서 물질계에서 아스트랄계 정도가 우리 인간계이고, 그 위로는 절대 올라가 볼 수 없는 초자아계인데 통합심리학자인 켄 윌버(Ken Wilber)가 이걸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철학에 가까운 상태로 심리학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21세기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러한 전인적 세계에 대한 인간학적 측면, 그리고 몸이 몸으로서, 물질로서만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23세를 기준으로 몸의 성장은 모두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내부적 성장이 일어나야 하는데 어려서부터 내부적 성장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라면 그걸 깨우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교육장관 회의에서 21세기 교육 모델로 발도르프 교육을 선택한 적이 있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에 21세기 인간학에 관한 교육 모델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와 교육은 아주 오래된 몸과 마음, 열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에 우주학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식의 체계도 동·서양을 나눌 필요 없이 다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교육 혹은 미래학교는 모든 인류의 슬기로움을 더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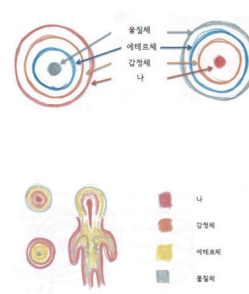
[12]

- 서구에서는
- 20세기가 되어서야
- 에테르 영성체를 키워야
- 올바른 사람이 된다고
- 생각했습니다.
- 슈타이너의 발도르프 교육이 그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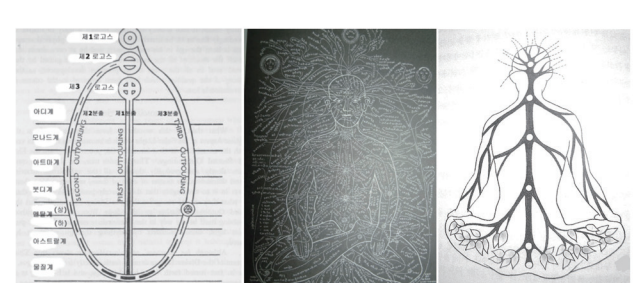
[13]



[14]



[15]



사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1910년대 평북 오산에 남강 이승훈 선생이 오산학교를 세웠고, 여기에서 한국 근현대사상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문학과 정치인들이 대부분 오산학교에서 배출됐습니다.^[18] 예를 들면 함석헌 선생, 주기철 목사, 춘원 이광수, 단재 신채호 선생, 화가 이중섭, 시인 김소월, 백석 시인, 다석 류영모 같은 분들이 있죠. 사실 오산학교는 전쟁 때 피난을 와 용산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남한에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산학교는 한국 근현대를 일으키는 중요한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없습니다. 10년 전에 파티가 개교하는 걸 보면서 저는 '21세기 오산학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역노숙인다시서기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2005년 9월, 임영인 신부께서 이곳에 몇 사람을 불렀어요. 저도 1기 교수진으로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노숙인들을 위한 인문학 대학을 만들자고 하였고, 그렇게 만든 학교가 성 프란시스 대학입니다. 노숙인들을 위한 인문학 교육을 위해 설립됐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1기 때 모습입니다.^[19] 졸업식은 성공회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임영인 신부님이 성공회였고,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노숙인 인문학에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대학에 가서 학사모를 쓰게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IMF 때 노숙인이 된 분들을 모시고 인문학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사상가인 얼 쇼리스(Earl Shorris) 선생은 미국 뉴욕의 슬럼가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인문학 대학 클레멘트 코스(Clement Course)를 처음 시작하였는데, 이것을 정리한 책이 바로 『희망의 인문학』이었습니다. 당시에 성공회대 고병헌 교수께서 이 책을 번역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신부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실험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수업의 원칙 중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발도르프 교육과 같은 모르고리즘입니다. 모르고리즘이라는 말은 김남수 선생의 표현입니다. 알고리즘의 반대되는 말을 그냥 모

르고리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소크라테스 산파술입니다. 1기 수업이 끝나는 2006년 1월에 얼 쇼리스 선생을 초대해 국립중앙박물관 강당에서 전체 워크숍과 비공개 워크숍을 했습니다. 당시 얼 쇼리스 선생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 한 가지를 강조하면서 요구하셨습니다. '탁월한 강연자들을 모셔서 강연하려고 하지 마라. 다섯 명의 교수진들이 항상 모여서 하나의 주제를 설정하고 그 주제를 역사, 예술, 철학, 문화, 글쓰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해라. 그리고 반드시 대화를 통해 수업해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강조하지 마라. 알고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이니 모름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우리가 지식 전달자가 되면 노숙인들은 99%가 자기 때문에 질문을 던져 그들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꺼내고 그 이야기를 다시 또 뱉어주어라. 강사는 대부분 일종의 매개자,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같은 일종의 촉진자로서 교수가 돼라.' 즉,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들이 되게 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진은 강의를 짤 때 대체로 산파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은 부처님의 제1사유의 원칙이기도 합니다.^[20] 이걸 송산스님이 주장한 깨달음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항상 '모른다'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라는 의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끄집어낼 수 있고 자기를 뒤흔들어 깨울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자기가 그 질문을 불리기 시작하면 스스로 익히고 저절로 배우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21]

두 번째는 그로부터 딱 10년이 지났을 무렵인 2015년, 경기문화재단에서 다사리문화기획학교를 설립했습니다. 1기는 제가 직접 교육철학을 세우고 수업도 진행해 졸업까지 했습니다. 지역문화교육진흥법이 생기면서 지역문화전문인력을 키우는 것이 광역단위 문화재단이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사리문화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철학을 이론, 실천, 워크숍과 같은 방식으로 생태주의, 문화연구, 인문학, 자연과학, 행공(行功), 그리고 문화재단이 앞으로 해야 할 도시재생, 지역재생, 마을만들기 등의 과정을 거쳐서 이들을 공동체 기반의 문화예술기획자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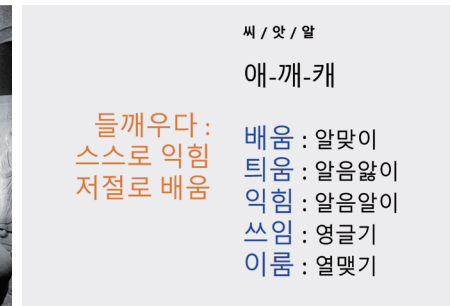
[19]



[20]



[21]



082

083

[illegible]

대안교육이 진짜 '대안'입니까



함은세 | 청년 정치 기획자

우선 이런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시고 초대해 주신 타이포그래피 학교와 경기북부어린이 박물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에 제안을 받고 나서 내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안교육을 경험했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관련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만의 방식으로 배움을 터득하고, 교육의 여러 가지 형태에 관계를 맺고 있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안교육 진짜 대안입니까?'라는 좀 파격적인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래서 저는 왜 발제를 하고 있는 거야?'라고 의문이 드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왜 발제자로 나서게 되었는지 배경 설명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1] 첫 번째로 혁신학교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전 서울형 혁신학교를 재학했습니다. 개교한 지는 얼마 안 된 학교지만 혁신학교 10년의 노하우를 가진 다양한 선생님들이 모인 곳에서 여러 가지 경험과 사례들을 바탕으로 좋은 배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1년을 마치고 나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2학년 올라가는 과정에서 학교 자퇴를 결정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대안교육에 익숙한 가정환경'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사실 중고등학교 교사를 오래 하셨고, 서울형 혁신학교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고등학교에서도 교사로 재직하셨습니다. 지금은 교육청에서 장학사로 혁신교육에 관한 여러 정책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미래교육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대안교육 그리고 교육운동의 여러 사례들을 만들고 종사하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보다는 대안교육이나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훨씬 익숙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거부감도 굉장히 덜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이 세미나에 초대받고 나서 "제가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라고 여쭙봤더니 "자퇴하고 나서 다양한 학교 밖에서의 경험들을 토대로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퇴 후에 어떻게 제

0
8
5

[1]



가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혁신학교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2] 혁신학교는 굉장히 자유로운 학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혁신학교에는 교복이 있지만 착용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편안한 사복 차림으로 등교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엄격이나 피어싱도 자유롭게 허용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그런 외부적으로 보이는 요인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외형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학생들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선생님들의 신념이 담겨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갈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 선생님들께서 학생 존중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학생들의 이야기에 가장 귀 기울여 주시는 사람도 선생님이고, 수업 체계를 설계하거나 수업을 혁신하고 시도할 때 학생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결정하는 등 수업의 혁신을 해나가는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이 많았습니다. 이 실험들은 기존의 공교육에서 시도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모둠 활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분단으로 둘러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모둠별로 수업을 설계해서 직접 수업하기도 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소논문 대회는 굉장히 큰 대회였습니다. 단순히 논문을 쓰고 그 논문에 대해서 수여하는 것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학생들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혁신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이야기할 때 들어가는 학생 자치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생회가 굉장히 중요

한 개체였고, 주체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전개하고 다른 혁신학교 학생회들과도 교류를 계속 쌓아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학교를 다녔던 것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교를 그만둘 때도 선생님들께서 제게 응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넌 사회에 나가서 무엇이든 잘할 수 있으니 그냥 하고 싶은 걸 다 해보도록 해”라고. 내게 좋은 어른들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자체가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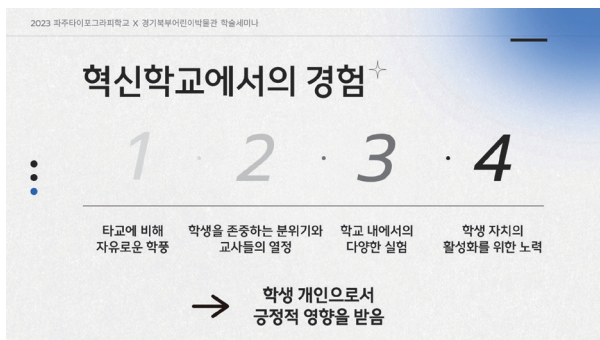
자퇴 이후의 삶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3] 우선 저는 배낭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다른 학교나 방송에서 강연했던 자리에서도 주로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여행이란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퇴하고 나서 18살 때부터 혼자서 전 세계를 돌면서 여행하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10대 시절에 아르바이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에 가서 밤새 공부하고 이런 삶을 사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 주변에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고 자란 동네 역시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학교들이 있는 곳이기도 했구요. 반면에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백수 생활을 하고 있어서 정말 수없이 다양한 형태의 아르바이트를 경험해 보고 생활력을 기르면서 물질적인 감각을 키워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글쓰기는 제게 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학교를 떠나고 나서 제 자신을 계속해서 정립하는 과정에서 글쓰기는 큰 화제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글을 쓰면서 자신과 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내 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다닌 봉사활동 단체는 모두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단체였습니다. 어른들은 아예 운영 이사조차도 참여하지 않는 특이한 단체였죠. 소외계층 어르신 분들께 무료 영정사진, 저는 장수사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장수사진을 찍어드리는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 경험을 해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

0
8
6

0
8
7

[2]



[3]



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제 스승이자 도서관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사람과의 만남,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의 삶이 있고, 그러한 다양한 삶을 보면서 내가 어떤 길이든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청년 활동가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4] 제가 사회에 조금 일찍 나와 다양한 커뮤니티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사회나 정치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대안 공동체 활동을 하거나 청년 활동가나 운동가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대안교육을 경험한 청년 활동가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음을 알게 되었는데, 저는 이 사람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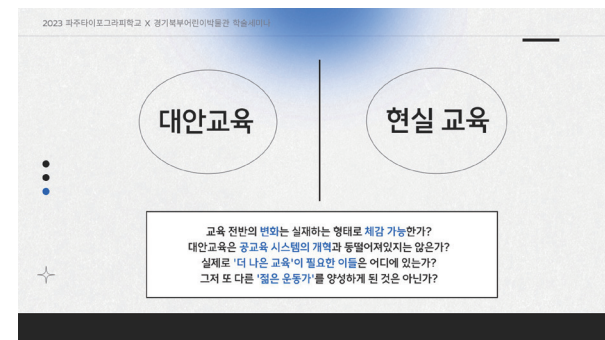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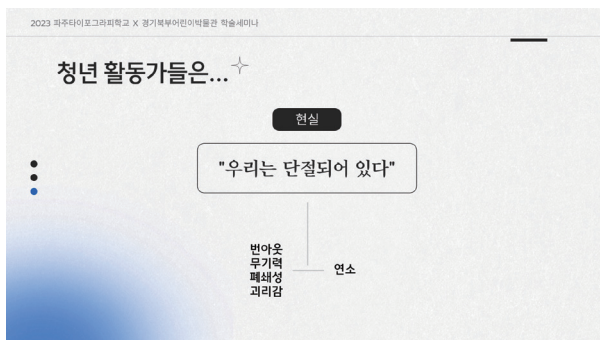
그것은 바로 현실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청년 활동가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사회운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안교육에서 느꼈던 경험 자체가 사회운동을 하는 데도 큰 작용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만났던 분들 대다수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사회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거시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면서 일찍 연소 당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안 공동체, 대안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결과 사회적 배경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운동이나 교육운동을 하면서 그 속에서 선생님들의 배움을 주입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대안교육을 경험했던 저와 친한 친구 중 한 명은 현재 평범하게 대학에서 졸업하여 대학원생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내가 너무 평범하게 살아서 다른 동창생들을 만나거나 선생님들을 만날 때 약간 민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평범하게 산다는 게 뭔데?"라고 하니 친구는 "왜 그런거 있잖아. 나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인생 챙기기 바쁜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약간 슬픔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사실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안교육 모

델을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그런 압박에 시달리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개인이 개별성을 가지고 그냥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대안교육에서는 또 다른 사회운동을 기른다는 인식을 많이 하게 됐던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한 현실교육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교육입니다. 제가 남동생이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저와 세 살 터울이예요. 그런데 제 부모님이 동생이 고등학교 진학할 때 "그냥 고등학교를 안 가는 건 어때?"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거기서 동생은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라고 답합니다. 처음 제 부모님은 제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지금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정말 즐겁게 다니면서 선생님과 학우들과의 교우 관계도 굉장히 원만히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이 너무 즐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교육과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교육의 갭 사이에서 과연 어떤 게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번 세미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떠오른 여러 질문들 중 간략하게 네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5] 첫째는 교육 전반의 변화는 실재하는 형태로 체감 가능한가? 즉, 우리가 대안교육을 시작하고 나서 실제 공교육 시스템도 변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안교육과 공교육이 많이 단절되고 분리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회와 정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교육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루 먹고살기 바쁜 친구들 또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대안교육 공동체 안에서 그런 학생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 지인 중에는 미네르바 스쿨의 서울캠퍼스에서 디렉터 역할과 경험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과의 이야기에서 "더 나은 교육에 대한 정보조차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안교육 또한 지금 당장 하루 먹고살기 바쁘고 내 삶과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이미 거기



서 부재할 수 있다고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공교육 시스템의 개혁과 동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저 같은 경우에는 대안교육을 공교육 시스템으로 옮겨온 혁신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체감을 많이 한 편입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혁신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안교육이 뭔지, 그것 때문에 도대체 내 삶이 변화하는 게 무엇인지 의문을 가진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 직시하고 인정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더 나은 교육으로의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더 나은 교육이 필요한 이들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실제로 더 나은 교육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대해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가? 그들이 받지 못하는 교육 시스템들을 우리가 혁신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그저 또 다른 젊은 운동가를 양성하게 된 것은 아닌가입니다. 사실 이 말은 예민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대안교육에 대한 애정이 있고 대안교육의 발전을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다른 형태이기는 하지만 제가 그것의 수혜자이기도 하니깐요. 그리고 제 주변에 다양한 친구들이 대안교육을 통해서 각자의 삶을 찾아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개인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대안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보통 부모님이 보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의사를 물어보아 가지 않은 것이지만 이러한 혁신적인 교육이 맞지 않고 어려운 친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조차 우리가 '이것이 더 나은 교육이야, 이게 더 발전된 교육이야' 하면서 이것을 강요한다면 거기

서 오는 괴리감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미네르바 스쿨'과 '에코 42'입니다.^[6] 사실 이 두 사례는 우리가 대안교육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이 논의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했던 이야기 또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들을 통해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두 학교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시스템, 감각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두 학교가 시도하는 교육 자체가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Project-Based Learning)이라는 카테고리 외에도 현실에서 학교들이 오가는 캠퍼스 혹은 공유하는 어떤 시스템, 다른 커뮤니티들과 계속해서 밀접하게 상호 소통하는 과정 자체가 그들에게 배움이 되고, 그 커뮤니티들이 모두 현실교육이나 시스템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고 지금은 정치 기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주변의 청년 정치인들이 신당을 창당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당을 대체하기 위해 또 다른 정당을 만드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요.^[7] 특히 정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 시스템 자체는 기존 정치 시스템과 다르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대로 탑-다운 구조가 되어 그 안에서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고 교류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앙 권력화, 중앙 시스템화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얘기를 교육운동을 열심히 전개하시던 저희 아버지께도 합니다. 학교를 대체하기 위해서 또 학교를 만드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면서요.

저는 대안학교, 그리고 지금까지의 대안교육이 우리 사회에 미친 선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분리되고 단절된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은가?' 그것을 직면하고 극복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교육으로의 가능성, 그리고 발판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교육에 대한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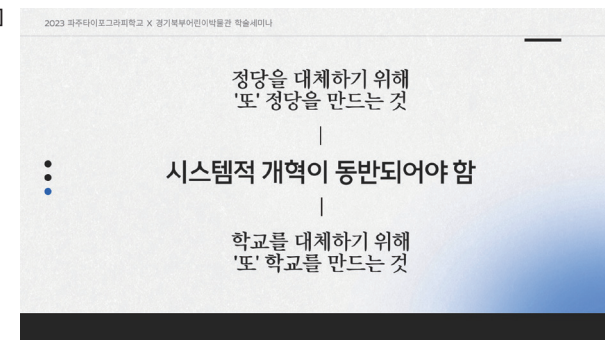
0
9
0

0
9
1

[6]



[7]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대안교육이 공교육을 만나서 혁신학교가 된 사례처럼 여러 시도들을 통해서 단순히 한 학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전개를 해보기도 하고 그것을 경험한 개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것, 어떠한 대단한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각자의 영역에서 건강하게 잘 살아가면 되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대안교육의 방향성에도 일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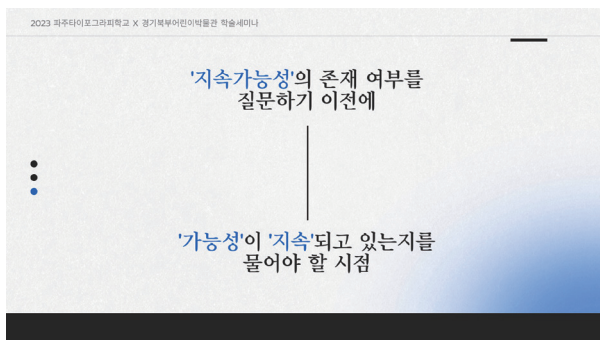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의 존재 여부를 질문하기 이전에 가능성 자체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되물어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8] 제가 얼마 전에 덴마크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면서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덴마크 사회는 너무 안정적이고 교육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학생 개인의 교육적 도전을 굉장히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한국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정적이고 잘 사는 나라에서 쉬운 길이 있는데 굳이 힘든 길을 택하는 이유가 뭐야? 아무도 하지 않는 전공을 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소방관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거의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남들이 하지 않은 걸 하려 하냐고.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육 선진국, 교육 복지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폐해가 있는 것이고, 모두 각자의 방식대로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어떠한 영향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맺으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저술에 관하여』라는 책을 쓸 때 했던 말입니다.^[9] ‘가장 최근에 쓰인 것이 늘 더 정확하다는 생각, 나중에 쓰인 것이 전에 쓰인 것보다 개선된 것이라는 생각, 모든 변화는 곧 진보라는 생각보다 더 큰 착각은 없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안교육에 굉장히 애정이 큼니다. 그리고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사회 전체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우

리가 지금 서 있는 지점은 어디인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할지를 돌아보는 그런 인지와 자각 역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발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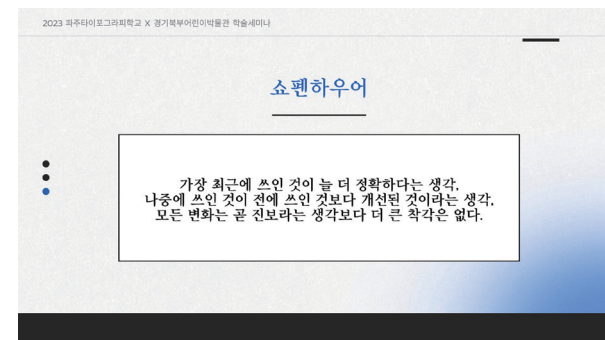
0
9
2

[8]



0
9
3

[9]



장기전에 대하여



조신철 | 전통미장 활동가

안녕하세요. 조신철 부기라고 합니다. 저는 하자작업장학교를 졸업하고 파티의 주니어 과정을 졸업한 다음 교무행정직으로 일하기까지 파티에서 총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얼굴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려니까 말주변이 없는 저를 왜 섭외를 하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기'라는 이름은 제가 하자작업장학교 들어가면서 만든 이름입니다. 당시에 '부기우기'라는 음악이 있어서 부기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초대를 받았을 때 가볍게 떠오른 것이 <장기전에 대하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장기전에 대한 것을 두 가지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길게 끌고 간다'라는 의미에서의 장기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떤 특기나 장점 같은 장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에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어떻게 지내 왔는지에 대해 간단히 이력을 말씀드리고, 제가 겪어왔던 두 군데의 대안학교에 대해 생각나는 키워드들로 이야기 하면서 왜 이러한 주제를 잡게 됐는가에 대해서도 간단히 다루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는 여러 가지 대안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대안교육을 겪은 사람들도 많지만, 제 경우에는 하자작업장학교도와 파티처럼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과 관련된 교육을 계속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안교육에는 여러 갈래가 있고 그런 점들이 대안교육의 특징이다 보니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9
5

저는 부산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퇴를 결정한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아무래도 사립학교이기도 하고 특

안녕하세요.

조신철입니다.
조부기

장기전에 대하여

18살
서울 영등포
하자작업장학교
주니어 과정

히 체벌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집단문화 역시 억압적인 점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지내야 하나?' 생각하면서 부모님과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윤리 교사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삶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됐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낼 바에 검정고시를 봐서 빨리 대학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자퇴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반년에서 1년 정도 도서관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나이가 그렇듯이 강제적인 틀이나 강력한 동기가 없다면 그것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준비는 안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하자작업장학교라는 곳이 있다고 찾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좋은 기회가 돼서 서울에 올라와 하자작업장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거기서 2년 정도 주로 인문학과 시각디자인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료한 이후에는 봉 뜬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료하면서 군 입대라는 시점도 있었고 여행을 여러 번 다녀오기도 하고, 당시에 그 정도 기술을 가지고 바로 사회에 편입하기가 어려운 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디자인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파티가 생긴다는 얘기를 우연히 듣고 지원하게 됐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파티에서의 생활은 작년에 마무리를 하고, 그 뒤부터 전통문화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전통문화교육원 문화재 수리 기능인 양성 과정에 다녔습니다. 거기서 한식 미장을 했습니다. 한식 미장은 한옥을 이루는 벽체를 바르거나 바닥을 만들거나 하는 일입니다. 작년에 그 과정들을 수료하고 거기의 담당자였던 김진옥 명장님이 운영하는 팀을 따라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주로 서울을 기점으로 군산까지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별로 제가 어떤 생각과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자작업장학교의 주니어 과정을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 거의 20년 가까이 돼서 가물가물하지만,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처

음 면접 때입니다. 아무래도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서울에 처음 올라온 상황에서 면접 대기실에 있는데 1년 선배가 와서 안내를 해줬습니다. 뽀뽀머리를 하고 피어싱을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존재가 있구나'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를 대기실로 안내하면서 되게 친절하게 긴장을 풀어주려는 어른스러운 행동들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곳에 오고 싶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면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두 번째는 하자작업장학교의 환경과 문화들이 많이 기억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자 일곱 가지 약속'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일곱 가지 규칙이 써진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는 하자작업장학교 어딜 가든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변기 앞에도 있었습니다. 규칙의 내용은 '차별하지 않는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해야 하는 일도 한다'와 같은 내용들의 약속이었습니다. 학교에는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 덕분에 기본적인 질서가 지켜지고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자작업장학교에서는 선생님을 '판돌', 학생을 '죽돌'이라고 불렀습니다. 판돌은 '판을 만들고 돌린다'는 뜻에서 판돌이고요. 죽돌은 아마 '죽친다'는 뜻일 겁니다. 이분들과의 좋은 관계들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흡연실인데요.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자작업장학교에는 꽤 쾌적한 테라스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공식적인 흡연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교직원과 판돌, 죽돌, 그 외에 외부강사까지 모두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담배를 피우면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공간이 좋아서 비흡연자 친구들도 와서 편하게 얘기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공간이 없었다면 주차장이나 골목 어귀 같은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하자작업장학교에서는 이 흡연실에 대해 많은 의미 부여가

하자작업장학교 주니어 과정

기억 1. 처음 면접

기억 2. 작업장학교의 환경과 문화

하자 일곱가지 약속 판돌-죽돌 흡연실 문화예술산업중심 (작업장)

돼 있는 곳이라 그런지 별금을 계속 내면서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자작업장학교는 문화예술 산업 중심인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일들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좋았던 기억들이 납니다. 예를 들면 라디오나 음향 녹음을 할 수 있는 부수도 있었고, 지하에 밴드 합주실, 디자인할 수 있는 영상 편집실 같은 곳들이 많아서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러한 작업을 익혀볼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기억에 남았던 수업은 프로젝트성 수업인 불한당 잡지였습니다. '불한당'의 뜻은 '불안하고 한심하지만 당당한 10대'의 축약어입니다. 그 당시 글 쓰는 친구들과 디자인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잡지를 만들자고 하였고, 그들이 생각하는 시대상을 담고자 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글 쓰는 쪽으로 들어갔다가 이후에는 디자인에도 관심이 생겨 두 가지를 함께 하게 됐고, 그때 디자인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2년을 잘 보내고 수료를 하게 됩니다. 수료 후에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을 가야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순간인 '대학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제 경우는 고집도 있고 디자인도 혼자서 무언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10대라는 시간을 수능만을 위해 사는 것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학교를 나왔는데 막상 이렇게 다니다가 바로 대학에 가자니 그동안 지내왔던 것들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고 싶었던 대학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런 점들로 인해서 사회에서 그냥저냥 생활을 많이 해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하자작업장학교에서 익힌 디자인들인데, 제가 가진 디자인 기술로는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얻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할까?'라는 고민 자체를 많이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워보고 싶어서 동네 근처에 있는 정비소 구인공고를 보고 하루 일을 해보았지만 보수가 적어 바로 그만두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파티에 오기 직전에 하자작업장학교 동기였던 제 친구가 대전에서 문화기획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친구가 대전에 내려가 활동하면서 대전에서 이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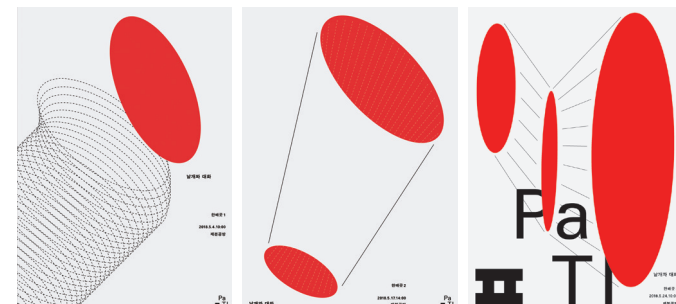
어지는 문화예술 아카이브 사이트를 한 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 디자인을 맡게 된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로젝트가 잘 완성되진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디자인이라는 것이 정말 깊고 이를 제대로 배워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 되었습니다. 정말 우연하게도 이런 생각을 하던 시기에 파티가 만들어졌고, 정말 우연하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파티 입시 워크숍 때의 장면이 많이 떠오릅니다. 건너편에 있는 출판센터에서 워크숍이 열렸는데, 빨간 카펫이 깔려 있고 김건태 스승이 하얀색 통들을 쌓아 연출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자작업장학교에서 어떤 선배를 보면서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한 것처럼 그냥 당시의 그 모습 자체가 감각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내가 이곳에 오면 이런 감각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느꼈습니다. 파티에서의 생활은 고등학교와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일종의 전문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날개와 차담^[1]을 나누다가 제게 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하자작업장학교와 다른 점은 전문성이라고. 그 말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2학년까지는 디자인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많이 습득하는 시간이었다면 3학년이 되니 갑자기 "너 어떻게 살고 싶니"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디자인을 잘하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러한 생각을 잘 엮어가면서 4년을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졸업 직전에 울산에 있는 유니스트에서 좋은 기회를 얻어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이언스 월든(Science Walden)이라는 과학예술융합 프로젝트가 막 시작되어 초창기에 그곳에 합류해 간단한 시각물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3개월 정도 지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느낀 것은 파티에서 만들어 낸 시각물을 보여줄 때와 유니스트에서 만든 것을 보여줄 때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어?'라든지, 어떠한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감각이 아주 달라서 내가 서 있는 지점에 따라 디자인을 받아들이는 방식과 전달되는 방식이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



[1] PaTI 날개와 대화 포스터



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파티의 교무행정직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처음 이 제안을 받고 나서 아주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떠한 부름을 받는다는 건 아주 기분 좋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파티 운영이 더 잘된다, 잘 운영되고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들에 의미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졸업 후에 당장 갈 곳이 없어 막막했던 마음과 생활에 있어서도 많이 도움 됐고, 여러 요소들이 잘 맞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대안교육을 받아오다가 이제는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제가 제일 처음 느낀 점은 '자원이 많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학교라는 이름 아래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한 사람이 교육을 통해 성장하는 데 3만엔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달라진 점은 그 시점부터 연령대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과정에서도 배우미들을 보면서 전문가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사회에서는 속도와 정확성을 요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파티를 묘사할 때 야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 쓰곤 합니다. 그런데 야생이라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교육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진 감각적인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를 전달하기 더더욱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과정에서 파티 같은 학교들이 있어야 그 이후에 전문성을 길러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대안학교의 홍보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대안학교에 가면 "너 서태지가 돼서 판을 뒤집어야지"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태지는 자퇴 안 해도 잘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어떠한 조직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식은 스타를 알리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에 와서 이러한 흐름

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느낀 것은 커뮤니티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 요즘 세태이자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이런 사람들과 지낼 수 있어'라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2]

그래서 미장을 접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내 삶을 기획하고 있는가? 나는 일과 기술, 생활이라는 측면에서 교무행정직이라는 직업이 내 몸에 맞는 일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고민 끝에 이 일이 맞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디자인을 한다면 여러 가지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미장이라는 기술을 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돌아가서 <장기전에 대하여>입니다. 내가 지속할 수 있는 것을 찾자. 내가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처음에 그것이 디자인이었지만, 디자인만으로는 안될 것 같고 몸을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장을 택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 데는 부모님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10년 전쯤 은퇴하시고 지리산에 함양이라는 곳으로 귀촌을 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 사례를 제가 많이 보았는데, 은퇴 후에 시골에 들어가시니 친구들과 단절되어 심심해하고 무료하고 어떠한 목표가 상실된 삶을 지내고 계셨습니다. 취미를 가지려는 여러 노력을 하시긴 하지만 마음이 잘 안 붙으시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귀촌하자고 권유해 아버지를 끌고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 교우관계도 생기고 밭도 가꾸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일이 전부가 아니구나, 일상을 잘 향유하면 그 주제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통적인 대화나 어떤 매개체가 생기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일이 끝난다면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과도 멀어지게 되고 일상적으로 연결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좋은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건강입니다. 미장을 하면서 일흔 살이신 분이 저보

**파주타이포그래피배곳
교무행정팀**

장기전에 대하여
미장.
내가 지속할 수 있는 것

[2] 미장 활동 모습



다 빠르게 미장을 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돈은 계속 벌 수 있을지도?'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늙어서도 몸을 잘 움직일 수 있을지도?'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너무 쫓지 말고 조금 더 탐구하면서 가도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상의 힘.

일을 일상으로 연결?

건강하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



발걸음이 모여 만드는 길: 대안교육 그 이후의 삶

조채운 | 어쿠스틱 이야기 콘서트 진행자

안녕하세요. '대안교육 이후의 삶' 발제를 맡은 조채운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는 '까르'라는 이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는 대안교육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여러 학교에 가서 강연을 몇 차례 했어요. 대상은 주로 일반학교의 학생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주로 대안학교 이후 삶의 가능성에 대해 조금 희망적으로, 기술적인 방식에 대한 이야기와 어떠한 희망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대안교육 판을 궁금해하고 만들지도 모르는 어른들이 자리한다고 하여 조금 다른 내용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저에게 왜 이러한 강연이 들어왔고, 왜 다른 곳에서 여러 차례 강연을 해왔는지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법씨학교를, 고등학교는 하자작업장학교에 다녔습니다. 저와 연락이 닿는 선후배와 친구가 100명이 있다고 보았을 때, 그중 대안교육 가치관을 가지고 이후의 삶에 대한 가능성을 만든 사람은 저 포함 정말 한두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초청한 어른들 혹은 학생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기에 이러한 곳에 오게 된 것이죠. 더 이상 그런 강연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나머지 97~98명 정도 되는 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조금은 따끔하고 분노가 서려 있는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 법씨학교의 일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씨학교 제주학사는 제 본가로부터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데, 지난달에 제가 본가에 살면서 제주학사의 삶을 옆에서 볼 수 있었었습니다. 일단 제주학사 친구들은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백동산이라는 곳을 약 3km 정도 달립니다. 그런데 이때 각자 정해놓은 목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매일 아침 측정합니다. 이 시간보다 늦으면 다시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제주학사에서 1년 지내고 오면 몸이 엄청 튼튼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침을 먹는데, 이 아침이 그냥 나올까요? 아닙니다. 직접 가마솥에 매일 아침 밥을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밥 짓는 사람 포함 총 두 명이 밥을 준비합니다. 아침 구성은 밥과 국, 반찬 두세 개 정도인데, 이것 한두 학생이 준비합니다. 밥 실력과 생활력이 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수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주학사의 경우는 마을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동네활동이라고도 하는데, 마을 주변 어르신들의 집에 가서 그분들의 역사를 구술로 푸는 작업을 하는 친구도 있고, 그분들을 모시고 같이 그림 수업을 하기도 하고, 그 그림들을 창고를 정리하여 박물관으로 만들어 주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풍물이 제주학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제주학사 친구들이 풍물을 기깔나게 잘합니다. 대부분의 대안학교가 풍물을 많이 하는, 이 풍물은 자신들의 적성이라기보다는 이를 통해 여러 사회적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제주 4.3 추모회와 강정생명평

화대행진에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씨학교를 졸업한 뒤, 제주학사가 자리 잡고 3~5년 정도 됐을 무렵, 제주도에서 '법씨학교 졸업생'이라고 하면 많은 어른들이 "그 학교 학생들 정말 대단하지!"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풍물을 통해 그런 행사나 행진에 앞장서 여러 연대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학교에 돌아와서는 인문학과 철학 등의 공부를 많이 합니다. 또 밤에는 본인을 돌아보는 글쓰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가 어땠고,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보다 성장할 수 있는가를 매일 고민하면서 지냅니다. 제가 졸업하고 이러한 과정이 너무 멋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하루 같이 지내본 적이 있는데, 하루 만에 도망쳤습니다. 어른이 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주변 어른들은 "너희 정말 멋있다, 대단하다, 살아가는 데 많은 힘을 키우고 있구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입니다. 졸업 이후에 어떤 사회가 있을까요? 저는 한국 사회를 볼 때 크게 자본이 힘을 갖는 사회와 경쟁해야 하는 사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학교(대안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지만, 울타리 밖으로 나왔을 때 자본과 경쟁을 갖지 않고서 나의 일과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은 숫자로 표현된 경쟁입니다. 문제는 대안학교 안에서의 배움에 숫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대안학교에 12년을 다니다가 졸업했는데 아무런 숫자가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쟁해야 하는 사회를 그냥 만나는 겁니다.

대부분의 대안학교 학생들이 방향기를 겪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무조건 대학에 가야 한다고 설명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학이란 정말로 공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은 대학은 간자와 가지 않은 자, 두 가지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 간 사람들 중에서도 적성을 찾은 사람과 찾지 못한 사람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적성을 찾은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적성을 이룰 수 있는 곳이 대학 말고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적성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불안을 견디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대학을 진학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처음에 발제하신 함은세 님과 제 경우는 부모님이 불안해 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대안교육을 신뢰하고 있는 가족과 신뢰하고 있지 않은 가족의 학생 양상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저는 이러한 원인에 어른들이 대안사회를 먼저 만들지 않고 대안교육을 먼저 만들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안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른들이 알지 못합니다.

본인들이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대안교육을 받은 건 그 학생들뿐인데, 그들이 졸업하면 아직 스무 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부모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너 대학은 가야 하지 않겠니?" 학생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지금까지 12년 동안 스스로 살아가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너의 방식을 존중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대학에 가라는 말을 들으니까 혼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학에 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입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입시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검정고시처럼 '1+1=2'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1+1인지, 1×1인지, 1÷1인지도 모르는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대학입시입니다. 대안학교 학생은 1+1도 할 줄 모르는데, 이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까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서 5년은 대학입시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안학교 학생들의 눈이 높아서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 예를 들면 한예중, 연세대 이런 곳에 쉽게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졸업했을 때 자신이 정한 길을 갈 수 있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적성을 찾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자작업장학교를 졸업했을 때 저와 함께 춤을 추던 다섯 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 경우는 춤도 좋았지만 춤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좋았고, 춤을 통해서 사회에 무언가를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대학에 가자니 4년이라는 시간과 수천 만원을 들여서까지 춤을 좋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춤 선생님께 연락하여 따라다니면서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제외한 정말로 춤을 사랑했던 나머지 친구들은 다 대학입시를 준비합니다. 이중에 두 명은 2년 만에 트라우마를 안고 아예 춤을 못 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춤으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합에서 발레를 취야 합니다. 그런데 발레는 일단 기본기가 돼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발을 뻗고 턴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60명 중 한 명에 뽀빠만큼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시합을 위한 춤을 좋아한 게 아니었어요. 표현하는 게 좋았고, 몸을 움직이는 게 좋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시합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만 하니까 이러한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고 순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춤을 출 수 있답니다. 그러한 과정이 매일매일 같은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안전망이 어른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 각 개인이 감내해야 합니다. 그렇게 두 명의 친구는 트라우마를 얻고 춤을 못 추게 되었고 나머지 두 친구는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춤을 추려면 어느 정도 키와 몸무게가 돼야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는 것으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중에 한 친구는 한부모 자녀여서 유학 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학교에 다닌 저 포함 다섯 명

의 친구들이 이 친구의 이름으로 '유학 가자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내 친구는 죽을 때까지 춤을 출 친구다, 너무 아름다운 춤을 추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 이 친구를 위해 후원을 해달라고 하니 한 달만에 약 800만원 정도가 모입니다. 이 친구는 이 돈으로 독일에 갔고 지금까지도 독일 내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춤을 잘 추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네 명의 친구들 가운데 한국 사회에서 춤을 출 수 있었던, 즉 대안학교에서 경험해 오던 춤을 발휘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제가 뜬금없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저는 춤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선생님을 따라다니며 춤을 추며 2~3년이 흐르니까 주변에서 저를 춤추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생님이 속한 극단에서 춤 공연과 춤 교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사례만 설명하면 엄청 희망적입니다. 대안학교를 졸업해서 나를 믿어주는 선생님 곁에서 즐겁게 춤을 추며 일과 공연을 하면서 돈을 벌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만 말을 하기에는, 친구들의 삶을 알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학생들한테는 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배움은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친구들보다 잘한다고 하는 것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기뻐야 기쁜 거라는 생각에 한 가지 결심을 22살에 하게 됩니다. 내가 12년의 대안교육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 삼아 대한민국에서의 삶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가. 만약 만들 수 없다면 그냥 대안교육의 폐지를 말해야겠다. 학생들이 모르는 사이에 사회 부적응자를 만들고 있다. 제가 20~22살 때, 대안학교 졸업생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내가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 내가 너무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다, 나는 아무런 경쟁력이 없다"입니다. 졸업생들이 모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대안학교는 무조건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스물다섯 살 이후부터 이 사회를 살면서 아까 말한 자본주의와 경쟁의 삶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이탈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대안학교 폐지를 말하지 않기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사실 저는 대안학교 졸업생을 간디학교 졸업생들 말고는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나던 대안학교 졸업생 중 80%가 간디학교 학생이고, 나머지 20%는 다른 조그마한 학교 졸업생들이었는데, 그들은 아직 비주류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도권에서 정규과정을 해오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진심으로 삶을 고민하는 어른들이 이 판에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사회를 조금 더 만들어 가야겠다. 어떤 가능성을 타진해 보면서 충분히 새로운 대안사회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 운이 좋게 '비전화공방서울'이라는 곳을 접하게 됩니다. 이곳은 20~39살의 삶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12명을 대상으로 일본의 후지무라 야스유키라는 행복한 삶 발명가가 자신의 기술과 삶의 철학, 동료들을 만들고자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어찌 보면 교육기관이자 작업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들어간 이유는 후지무라 야스유키 선생님이 '3만엔 비즈니스'를 발명한 사람인데, 3만엔 비즈니스는 제가 생각하는 대안교육 이후의 대안 삶의 가치관과 이상을 한국 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술이 너무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였는데, 정말 운 좋게 그 분이 서울시와 협약을 맺어 한국에서 교육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봤고, 다행히 통과하여 1년 동안 그곳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기술을 배우면서 느낀 점은 3만엔 비즈니스의 구체적인 약속과 항목, 기술의 철학이 완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사회에서 비즈니스란 돈을 어떻게 버는가가 기본기 저라면 3만엔 비즈니스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동료를 만드느냐, 나의 기술을 어떻게 나누느냐, 나눔으로써 어떻게 자립할 것인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방식으로 다른 방법과 기술을 알려주는 사람이 제 인생에 후지무라 선생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비전화공방을 졸업하여 4년간 3만엔 비즈니스를 오로지 제 삶에 실험하면서 매년 공유회를 열었습니다. 이 삶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수입과 지출은 실제 어떠한지, 올해 내가 본 가능성이 무엇이며, 바뀌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매년 대안학교 졸업생이 들어오고, 매년 퇴사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총 4년간 이러한 활동을 했었습니다.^[1]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일의 체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집중하게 된 것이 바로 개더링이었습니다. 개더링의 자체가 어디서 시작됐다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재밌게도 코

[1] 개더링 활동 모습(사진 제공: phoma_photo)



로나 이전에 일본에서 표주박 개더링 열렸습니다. 그건 산속에서 생태주의로 살던 한 가족이 '새로운 문명을 만들 것입니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은 텐트만 들고 찾아오세요'라고 해서 모였습니다. 그 공간에서 돈 없이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한 달 혹은 두 달을 살아갑니다. 저도 거기에 가서 궁금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 실제로 가능한 모습을 보았고 제 안에서 많은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안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워크숍이나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면서 매일 모닥불 주변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연결되면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사회가 만들어지겠구나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어떤 아이디어를 깨달은 한국인들이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직후 대구를 시작으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기본적인 자본주의 사회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일이 멈추고 시간이 남아돌기 시작했습니다. 대안학교 졸업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너무 힘들어서 떠났던 해외 정착자 혹은 방랑자들이 다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조금은 다른 사회를 살고자 했던 사람들의 시간이 다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개더링이 하나 열렸고 이들이 다 들어옵니다.[2]

아까 말했듯이 사실 저는 대안학교를 졸업하고도 대안학교의 졸업생들을 많이 만나지도 못했고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어떻게든 타진해 보겠다면서 전투하는 느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개더링에 갔더니 저보다 이상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7년 동안 무전여행으로 배낭여행을 다녀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개더링에 온 사람들이 다들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년에 개더링이 두세 차례 열리고 올해도 벌써 개더링이 다섯 번 열렸습니다. 개더링에는 그냥 참여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 계신 관장님과 날개도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개더링은 분명히 열릴 겁니다. 한번 가보면 도대체 대안 삶이란 뭘까? 지금의 자본사회가 아닌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한 시공간을 경험하게 되고, 사람과 연결되면서 그 힘이 더욱 커집니다. 올해 '잇는잔치' 개더링[3]에서 2박 3일 정도 지내면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 사회는 이러한 모습이었구나'라고 어렵짐작 됩니다.

아까 관장님의 첫 번째 발제가 '스스로 배움'입니다. 저는 그 제목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말했듯이 개더링에서 같이 만난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들이 뭔가를 같이 타진하면서 다른 가능성들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생각났고, 다른 하나는 매우 무책임한 말입니다. 학교 안에서는 스스로 배움을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어른들이 바뀌지 않은 사회에서 이렇게 스스로 배움을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박물관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 20~39세의 삶을 고민하고 찾고자 하는 어른들이 바뀔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바뀌고 무언가 다른 사고 체계가 생기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이 아이한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한테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살아갈 사회는 없습니다. 아직 만들어지고 있죠.

20분이란 짧은 시간에 제가 보고 있는 가능성과 구체적인 방법, 사안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개더링 활동 모습(사진 제공: phoma_photo)



[3] '잇는잔치' 포스터(제공: nextgenkorea)



김종길(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관장) 함은세 선생님부터 시작해 조신철 선생님이 적절하게 종이를 뭉치고 또 뭉쳐서 마지막에 조채운 선생님이 저희의 정신을 깨는 물의 망치를 때려 날벼락이 친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참 좋습니다. 때때로 이런 날벼락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신이 번쩍 들도록 뒤통수를 후려치는 날벼락이 한 번쯤 와야 됩니다. 맞아요. 그 얘기에 너무 공감이 됐어요. 대안사회는 없고, 대안교육만 있다. 이런 정말 제가 그토록 고민해 왔던 지점들을 후려치는 것 같았어요. 잘못했어요. 어른으로서 정말 반성합니다.

진짜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부부싸움을 가장 많이 할 때가 애들을 초등학교에 보낼 때였어요. “대안학교 보내자” “공교육 보내자” 이걸 가지고 진짜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럴 거면 이혼해”부터 “아니 왜 안 돼?”까지. 저는 조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내려고 했더니 “당신 같은 인간도 공교육이 키웠는데 뭘 그렇게 공교육을 미워하고 싸잡아서 욕하고 그래?”라면서 엄청 싸웠어요. 결국에 찾은 지점은 공교육을 보내고 방과 후에는 대안학교로 보내자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 또한 한국사회에 적응하느라 학생 때 10년 동안 연극을 했는데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요.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는 제 친구들은 지금도 저를 보면 “타락한 인간이 어쩔 저렇게 모범적인 인간으로 적응해서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대안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조채운 선생한테 한 수가 아니라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반드시 개더링과 3만엔 비즈니스에 참여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60세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어린이박물관 관장으로 와 가지고 어린이에 대한 뭔가를 세워야 하는 상황이 되니 ‘그래, 잘 됐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들을 여기에 일단 꾸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날개, 어떡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저만 반성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빨리 파티를 세우신 분으로서 약 3분간 반성의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웃음).

안상수(파주타이포그래피배곳 ‘파티’ 날개) 반성하겠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 말 씬하는 것이 저한테는 모두 폐부를 찌르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맨 처음에 밝돌께서 어린이를 받을 준비를 하라는 어떤 신탁과 같은 얘기들, 그리고 함은세 님의 발로 뛰고 경험한 상황들 속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모두 절절하잖아요. 사실 저는 도저히 그런 걸 겪어보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 자체가 제 빈 곳에 쑥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부기가 얘기한 것들 중에 제가 가까이 있었지만 몰랐던 것들도 있었고요. 마지막 조채운 님의 대안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까지. 게다가 후지무라 선생님은 제가 그 분의 집에서 잔 적도 있고, 서울에 오셨을 때 직접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확실하게 새겨야 할 얘기들이고, 파티가 향해하는 데 등대가 돼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예감 같은 게 들었는데요. 제가 일기를 잘 안 쓰거든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일기를 써요. 대개 버스를 타고 나오면서 짹막하게 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에 일기를 두 개 썼어요. 오늘 아침에 버스카드를 딱 찍으니까 1,200원이 찍히더라구요. 그래서 찍히는 순간 '아, 오늘이 11월 1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간이 지나는 걸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오늘 황인찬 시인의 시집을 열었거든요. 그 시집에서 한 줄이 딱 꽂히는 거예요. 그 구절을 일기장에다 그대로 썼는데, 기억이 잘 안나지만 '벼락을 맞고 자란 고목'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벼락을 맞은 거죠. 지금 파티가 열한 해 정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희가 지속 가능성처럼 그냥 살아남는데 계속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에너지들이 저희를 또 한 번 변화시킬 것 같아요. 이러한 변화가 향해하는 배가 방향을 확 바꾸면 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침로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자극이 저희들한테는 약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저희는 파티를 운영하는 것을 학교를 디자인 해나간다. 그리고 이곳은 디자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자체는 어떠한 하드웨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건에 따라 계속 변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해나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듯이 오늘 어떤 자극을 받아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길 질문이 혹시 있을까요?

안상수 질문은 제가 하는 것보다 다른 분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김종길 함은세 님에게 추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대안학교 같은 곳에서 '젊은 운동가를 키우는 데 너무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 이런 말들이 저한테 또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아마 부모나 학교, 모두가 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1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학습 목표가 되어 있는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때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추상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으로 건강해야 하는지, 왜 건강하다는 표현을 쓰셨는지, 건강함이 무엇인지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함은세(청년 정치 기획자) 건강하다는 표현이 추상적이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제일 직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서 사회운동을 하거나 대안교육을 거쳤거나 대안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친구들과 얘기해 보면 정신이 제일 건강하지 못합니다. 항상 멘탈에 무언가 문제가 있어요. 늘 우울하고 침잠되어서 멸망해 가는 지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 것인지, 다른 이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교육 공학을 하시는 연구자를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진로를 찾게 하고, 대안교육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너희가 무엇을 하고 싶은

지 계속 고민해 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교육이란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권리인 것이고, 이 아이들이 지금부터 진로를 찾도록 독촉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방향성을 설정해 준다고 하면서 교육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뒤틀린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 주변에 대안공동체 혹은 대안교육 활동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 사회와 조금 다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교육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줘야 하며, 이를 우리의 능력으로 승화시켜 빛나야 한다'는 어떤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다른 길을 추구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까 언급했듯이 연소 당합니다. 즉, 재박에 남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트라우마와 콤플렉스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 4월에 파티 연찬 진행하면서 언급했던 문장이기도 하고, 제가 강연이나 청년 운동가들을 만나면 항상 이야기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D.H 로렌스라는 작가가 얘기합니다. '혁명을 하려면 재미로 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안교육, 대안공동체도 어떠한 거대한 담론과 교육철학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개인 한 명이 자신의 영역을, 그리고 자기 삶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신이 건강하고 맑은 상태로 자기 자신을 추구해 가는 삶을 설계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진지함을 강조하고 엄청난 거대 담론 속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반복한다면 발전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픈 친구들만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 그것이 때때로 교육목표나 학교에서 다소 강요된 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함은세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학생이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부모님이 이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여 진학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각자 모두에게 맞는 것들이 별개로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대안학교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좋았지만, 제 남동생은 그냥 열심히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제가 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한 것처럼 모두에게 다양한 선택권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교육이 무언가 엄청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선민의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길 조채운 님. 법씨학교는 부모님이 선택한 거예요?

조채운(아쿠스틱 이야기 콘서트 진행자)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돈가스 집에서 "노는 학교 갈래, 공부하는 학교 갈래?"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저의 대답은 유치원 때 가장 친했던 친구인 다연이가 어느 학교에 가느냐였어요. 슬프게도 다연이

는 공부하는 학교에 갔고, 저는 노는 학교를 갔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부모님의 유도가 있었겠죠. 이후 초등학교 6학년 때 다시 한번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대안교육을 배울지, 아니면 법씨학교를 다닐지, 다른 학교를 갈 것인지 선택지가 있었고, 졸업 이후에도 계속 고민하다가 작업장학교를 가야겠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들 가운데 두 번은 제가 했고, 처음에만 부모님이 시도해 보려고 했죠.

김종길 초등학교 과정은 광명에 있나요? 그럼 광명에서 초등학교 다니고, 제주학사로 가서 중학교를 다녔나요?

조채운 중학교까지 다 다녔습니다.

김종길 다 하고 마지막 연차에 제주학사를 가죠?

조채운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주학사가 없었어요. 6년 차 터울인 제 동생은 제주학사에 2년 동안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본인이 제주학사에 있겠다고 해서 2년을 더 다녔고, 저는 중학교 3학년까지 광명에 있는 법씨학교 다녔습니다.

김종길 아까 이야기 중 마지막 부분인 개더링이 궁금한데요. 사람의 힘으로 개더링 전반을 운영한다는 지점에서 대안사회의 가능성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 가능성을 본 인이 입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조채운 일단 개더링은 대략 50명의 사람들이 최소한 4박 5일 정도를 산속에서 텐트만 치고 같이 지내거든요. 50명 정도 모이니까 그 자체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어떠한 돈이 돌아가지 않아도 교육이 돼요. 왜냐하면 서로가 가르쳐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서로 교육을 신청하기도, 받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개더링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개더링은 포럼과 비슷한 걸 진행할 사람들을 뽑아 일정을 잡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아예 사람들을 풀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에서 심심해지거든요. 인터넷도 안 터져요. 그러면 심심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삶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은 화덕이 없으니까 밥을 못 해 먹냐? 그럼 화덕을 만들자, 샤워를 하고 싶은데 샤워실이 없네? 그럼 샤워실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대안학교에서 배웠던 기술들을 실제 삶에서 공유공간을 만드는 데 활용하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참여한 ‘잇스는잔치’에서는 결혼식도 진행했어요. 이러한 것이 우리가 배워온 기술과 방식들을 통해 어떻게 하루 일과와 공동체를 만들고, 결혼을 하는 등의 모습을 계속 보니까 단순히 교실 속 3시간짜리 교육으로는 절대 체감할 수 없었던 기술과 삶, 동료의 연결을 개더링에서 경험한다고 할까요?

김종길 그런데 아까 함은세 님이 지속 가능성을 ‘가능성의 지속’이라는 개념으로 바꿔 불렀는데, 4박 5일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1년, 10년이라도 그 가능성은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조채운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개더링에 다녀오면서 개인에게 생기는 힘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도 ‘내가 혼자자 아니구나. 이런 삶을 고민하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을 계속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용기가 결국 다른 길을 만들고 다른 시도를 만들고 그러다가 또 불안해질 때쯤에 개더링으로 만나서 다시 한번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관계를 만드는 것이죠. 지금은 50명이 다 같이 365일 지낼 수 있을만한 자본도, 공간도, 공동체적 기술도 없기 때문에 단발적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연대가 엄청나게 강해지면서 ‘내가 혼자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서 무언가 가능성을 봤던 것 같아요.

김종길 그리고 우리 조부기(조신철) 님은 지금 미장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조신철(전통미장 활동가) 예. 내일도 논산에 가야 됩니다.

김종길 주로 한옥 미장인 거죠?

조신철 예. 1년 중에 겨울은 물이 얼어서 쉬고요. 가을까지 일을 합니다. 농사랑 흐름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의 2/3 정도는 한옥을, 나머지는 문화재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그럼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전수자 과정이라든가, 직업 양성 과정이 있을 텐데 지금 본인이 어떤 과정에 있는 건가요? 문화재 수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신철 생각보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김종길 정말요?

조신철 운영은 아무나 못하지만 제가 지금 겪는 현장은 아파트나 주택을 짓는 현장이 한옥화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화재 수리도 집이라는 범주에 속하고요. 그 일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은 일에 대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여야겠지만, 옆에서 돕는 사람들은 보통 각자 정해진 일들을 하게 됩니다.



경복궁 회랑 미장 현장 (사진 제공: 조신철)

김종길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삶의 앞 시간들이 열려 있는 건가요?

조신철 앞에 시간들이라고 하시면?

김종길 미래를 보고 있다는 건가요?

조신철 예, 맞습니다. 저는 미장을 하면서 조금씩 단순해 지는 삶에 가치를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제 나이대에서 요구하는 밥벌이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함은 경력과 나이에 상관 없이 조금 더 길게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편으로 일종의 보험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어떠한 큰 줄기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제가 가진 디자인 능력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접목시키는 등 뻗어나갈 수 있는 가지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김종길 발표 자료 중에 '디자인하는 세탁소 사장'에 대한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조신철 사실 이 단어는 제가 파티의 입학설명회에서 날개가 하신 이야기입니다.

김종길 '디자인하는 세탁소 사장'이요?

조신철 약간 그러한 뉘앙스였습니다. 제가 해석을 하자면 디자인하는 사람이 세탁소나 편의점 같은 것들을 운영하면 어떤 삶이 될까? 어떤 사회가 될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잠깐만요. 디자인하는 세탁소 사장이 대안사회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까? 여기서 추가 질의를 날개에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일반대학에서 디자인을 가르칠 때, 완전히 스타를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아마 이 반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작가는 한두 명밖에 안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강의실에서 공공연히 해요. 글로벌한 작가, 글로벌한 디자이너를 의미하겠죠. 즉, 대학에 온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전자나 구글처럼 이른바 대기업에 들어갔다면 그중에서 40~50대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추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역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직업 수명은 얼마나 될까? 그것들을 모두 숫자로 본다면 어떤 사람은 미장원을 하면서 70세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대기업에 들어가 40세에 퇴직하는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디자인을 공부해서 회사에 취직을 하고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들판의 꽃처럼 일종의 창직하는 개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냥 꽃집을 하더라도 디자인 감각과 멋을 어느 정도 안다면 그 자체로 훨씬 더 주목받을 수 있거든요. 또 본인이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 어느 잡지에서 알아보고 인터뷰하러 찾아올 확률도 높아질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채 일하는 존재가 멋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을 가르친다는 건 자기가 멋을 지어내는 주체로서 그러한 기능을 나누는 거니까요.

우리가 멋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생각하면 힘이 약한 씨름선수가 덩치 큰 사람을 넘어뜨릴 때와 같이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겨내거나 극복하고 초월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창의나 디자인이라는 게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방법이나 경험을 충분히 훈련하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자신이 창의적으로 해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졸업하고 대업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미장원을 하면서 70세 노인으로서 머리를 만지는 등의 작은 풍경이 멋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종길 네. 적절한 타이밍에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패널들 얘기는 중간중간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질문자 안녕하세요. 한배곳 2학년을 마치고 휴학한 김나무라고 합니다. 저는 부기가 이곳에 있을 때 배곳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과 파티가 콜라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티가 어떤 곳인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까지 파티를 기획하신 날개의 계획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부기는 한배곳 1기였고요. 저희는 1기 때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 우뚝배를 하기도 하는 등 개더링의 성격이 있었다고 전설처럼 듣고 있습니다. 저는 9기인데요, 2기부터 11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들어올 때 자원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 마침 부기가 자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은 부기가 생각하기에 어떤 자원이 부족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동료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을 내서 동료들을 만나러 이곳 안집에 왔습니다. 아까 부기도 파티에서 스타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에 너무 공감하고 있습니다. 1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곧 12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파티에 가면 누가 있더라, 이런 사람들과 지낼 수 있더라, 파티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요. 과거에 부기가 하자작업장학교 면접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면접장에 온 사람들이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려면 어떤 사람이 파티를 대표하는 것이 좋을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생존을 걸지 말아야 할 혁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 혁명은 정신건강에 좋지 못한데요, 대안학교 이후에 대학에 갈 것인가, 대학에 갈 때 적성을 찾아서 가는가, 아니면 불안하여 어쩔 수 없이 가는가, 대학에 가지 않는다 등의 선택지가 있고 파티도 거기에 속합니다. 아까 부기가 파티의 연령대가 낮아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점차 파티가 대학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기는 연령대가 낮아진 파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신철 지금 날벼락 내리고 있나요?

김종길 너무 좋은 벼락이치고 있어요, 지금.

조신철 일단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원은 사실 돈이죠. 그런데 돈이란 상징이지 않습니까? 모든 가치들이 현재 돈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고, 그 자체로 편한 도구인 것이죠. 아주 편한 수단이니가 보통은 돈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돈을 너무 쫓게 되면 그 의미가 없어지는 미묘한 상황들이 많이 생겨서 돈에 너무 의지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면 좋겠다. 자원이 부족한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지 고민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질문자 어떤 사람이 면접장에서 나를 더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는가.

조신철 각자 모두가 생각하는 맛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람을 볼 때, 첫인상을 믿는 편이라서 감각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간에 갔을 때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뭔가 부드럽게 대해준다든지 하는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멋져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한 느낌이 외모나 옷처럼 다른 여러 가지에서 드러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서로를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질문자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프로젝트에서 대학교처럼 되어 가고 있는 파티에 대한 리뷰를 해주세요.

조신철 저는 연령대가 낮아진다는 것에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안학교라는 축에서 파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대학과의 연장선상에서 대학에 가려는 사람들이 파티를 선택하겠다고 한 거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안교육과 공교육이 크게 구분이 있을까? 저는 선후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공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오는데, 그 시점이 빠르냐 늦느냐의 차이라서 크게 구분을 두는 게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능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의미적으로 의미적으로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티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상황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 사람들이 파티에서 어떻게 지내고 파티에서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이 될까는 하나의 교육기관으로서 파티의 역량이 자 목표됐죠.

김종길 적절한 대답이 안 됐나요?

질문자 너무 좋습니다.

김종길 오늘 세미나의 관계자가 아닌 분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 제 벼작가님이 한 분 와 계신데요, 세 분의 발표를 다 보셨죠?

질문자 네.

김종길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아침에 뜬금없이 제게 전화하는 바람에 여기 오게 된 작가님이십니다.

질문자 저는 막연하게 이런 커뮤니티나 과정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오늘 이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고, 직접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런 세대가 아니지만 저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기에 내가 끼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겁이 났습니다. 사실 저는 되게 개인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89학번인데, 그 당시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의 공동체 속에서 제 스스로를 잘 감춰서 너무 편안하게 있었거든요, 나서지 않고 숨어 있으면 정말 편하거든요. 거기서 나만의 안전한 공간을 찾고 미래를 도모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개더링 같은 여러 프로그램들을 보면 동료와 나눔, 공동체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그곳에서 은둔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어? 나를 어디에 숨겨야 하지?', 무조건 나를 드러내고 참여해야 하는 건가?, 무언가 뜻은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나만의 은둔 장소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지?’ 갑자기 그런 고민들을 해보았습니다.

조채윤 저 답변하고 싶어요.

김종길 답변해 주세요. 네.

조채윤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사실 제가 강연할 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교육 이후의 삶이란 자신이 하나하나 찾아서 만들어야 하거든요. 저는 3만엔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고, 그 일이 즐거운 사람이어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고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던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제가 말한 가능성을 만드는 게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조건들이 잘 맞아 가능했지만, 성향의 차이가 있을 때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 타진해 나가는 것은 매우 힘든 문제예요. 대안교육을 졸업하고 나서는 혼자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제 친구들도 되게 힘들어 했던 것 같아 이 자리에서 더더욱 제 얘기만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길 함은세 님도 한 말씀하세요.

함은세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연계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정치 기획이라는 콘텐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상품화하고 그 상품을 사고 싶게 만드는 것이 정치잖아요. 저는 그런 후보자를 기획하거나 여러 커뮤니티를 분석해서 공동체에 사람이 모일 수 있게 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맥락이기도 한데, 조금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약간의 파편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공동체가 너무 끈끈하니까 그 안에서 이해관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하는 일의 경우에도 애초에 이해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금씩 숨기고 덮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인 거죠. ‘이 사람과 우리의 이데올로기는 매력적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를 이야기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저는 대안교육이나 대안공동체 내에서는 자신들이 너무 끈끈하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이상과 달랐을 때 오는 실망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사람에 대해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즉 이 사람과 이 공동체는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현실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모이게 되죠. 그런 점에서 공동체 내에서 개인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개인 구성원으로서 역할하고 개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개인이 모여 공동체가 됐음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그게 정당정치의 탑-다운 방식의 맥락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안교육과 대안공동체에서도 한 명, 한 명이 그대로 존재할 수 있게 놔둘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종길 흥미롭게도 함은세 님은 청년 정치를 하고 있지만, 조채윤 선생님의 개더링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아니기한 공동체 사회로 보고 있거든요. 정당정치와 아니키즘적 공동체는 물과 불처럼 맞지 않는 거잖아요. 정당은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당의 목표를 설정하고, 당대표를 뽑는 과정을 거치는데, 개더링 활동은 다분히 이러한 조직성과는 다른 거죠. 다음 모임 때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임 수도 있고, 개더링에 리더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서 누군가의 주장을 일관되게 관철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란 말이지요. 그곳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논의가 합의되고 불발되는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안사회와 미래교육이 찾아야 할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30년 또는 50년 후에도 매일 가능성이 지속되고 있는 대안사회는 어떤 그림일까요?

조채윤 저는 ‘일단 그것을 알 수 없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개더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저희가 만드는 건 각 개인은 그러한 가능성들을 찾아가고 있는 개별적 존재여서 어떤 하나의 사회를 만들자고 합의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설정된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들을 지켜보고 있고요. 다만 한 명, 한 명이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와 살아가는 방식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개더링의 모임이 이 사회 내부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조채윤 가능합니다. 2017년에 서울혁신파크에서 개더링을 진행했었어요. 넥스트젠(NextGEN) 친구들이 일본의 아니키 히피 선생님과 함께 개더링을 열었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개더링은 어디든 자유로운 공간이 있으면 열 수 있고, 이 파티도 충분히 가능해요. 파티에서 개더링을 해보고 싶어서 기획해 줄 사람을 모은다고 마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자고, 요리해 먹고, 불 피울 수 있다면.

김종길 마지막 답변을 꼭 듣고 싶었습니다. 다음 개더링은 파티에서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우리 모두가 개더링에 참여해 새로운 날벼락을 맞는 걸로 해요. 사실 우리는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돌보가 있거든요. 뉴런은 전기 세포라서 생각이 많아지면 뇌돌보에 빛이 터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뇌돌보가 뒤흔들리는 개더링이 열렸으면 좋겠고, 그게 어찌면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미래교육의 중요 화두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마무리는 날개가 하도록 할까요?

안상수 우리가 안에서 보는 조직과 바깥에서 보는 조직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지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바뀌고 비틀거리는 길을 걸어왔거든요. 이것은 제가 혼자 끌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성과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스승들과 배우미들, 파티를 지지하는 여러 사람들의 에너지의 총화입니다. 오늘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에너지가 흡수된 거 같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 개더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직이 파티라서 저 역시 내년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개더링 덕분에 이상집이 또 난리 나겠네. 사실 저희는 '대안'이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대안이라는 말에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써온 이데올로기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독립학교'라고 부르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쓰고 멋지어가는 배곳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벼락이 파티가 새로운 틀거리로 성장하는 데 굉장한 약이 되는 지혜 나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티 10년을 맞이하고 앞으로 스무 해를 기획하는 올해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김종길 관장님과 지난해부터 이야기하다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파티의 20년을 설계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아주 편하게 해주신 게 너무 고맙습니다.

아까 조채운 님이 "오늘 내가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겠다"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은세 님은 사실 아버님께서 파티에 엄청난 기여를 했던 분입니다. 대를 물려서 같이 파티에 기여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부기는 파티의 상징 중에 하나이자 파티의 신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기가 지금 자신의 일을 스스로 설계하여 찾아낸 것처럼 그러한 기질이 분명히 있다고 보았습니다. 미장하는 일을 찾아낸 건 디자이너로서 탁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파티의 후배들한테 하나의 등대처럼 역할하고 있다고 봅니다.

파티 자랑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파티가 10년이 됐는데, 작년에 영국의 모토클(Monocle)이라는 잡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니크한 디자인 스쿨 상'을 받았습니다. 저희를 바라보고, 저희에 대한 기대나 성과를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곳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학교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의 정상사회, 건전한 우리의 길을 가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서 적정한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일을 도모하는 것, 일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는 배곳, 이것이 파티가 지향하는 점입니다. 경기 북부어린이박물관과 이런 세미나를 했다는 것 역시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김종길 오늘 세미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분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서 오늘의 사건을 기록하기로 하겠습니다.





미래공유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2023 학술세미나 자료집

주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PaTI(파주타이포그래피배곳)
총괄	김종길(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안상수(PaTI)
책임	윤여빈, 문형순(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박하얀(PaTI)
기획	최혜경, 김형준(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박찬신(PaTI)
제작 지원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학예운영실, PaTI
디자인	PaTI 박찬신, 박하얀
사진	김선옥(1부), 박기수(2부)
교정 및 교열	홍은비(월북출판사)

발행처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발행인	유인택(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편집인	김종길(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발행일	2023년 12월 19일
-----	---------------